

---

“ 민생활력, 미래도약 ”

# 2025년 예산안

---

2024. 8.



기획재정부

Ministry of Economy  
and Finance

# 순서

I. '25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 .....	1
II. '25년 예산안 전체모습 .....	2
III. 투자중점 .....	5
1.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	
2. 경제활력 확산	
3.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개선	
4. 안전한 사회, 글로벌 중추 외교	
IV. 재정운용혁신 .....	34
(별첨) 분야별 투자방향 .....	37

## I. '25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

### □ 국가재정을 국민이 원하는 민생과제에 집중 투자

- 민생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예산에 적극 반영
-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소상공인 재도약 뒷받침
  - 취업 단계별 일자리 지원과 교육기회 확대 및 주거사다리 구축으로 사회이동성을 개선

### □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 구조개혁에 중점

- 미래도전형 R&D 투자 확대 및 첨단산업 육성으로 우리 경제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, 청년과 지역의 도약을 지원
- 저출생 대응 및 의료개혁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고, 신유형 고강도 재해 및 범죄 대응에도 투자 확대

### □ 재정운용혁신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

- 지출효율화를 통해 재정전반의 누수와 낭비를 최소화하고, 다부처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**협업예산** 편성
- 재정적자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,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

\* 관리재정수지(GDP 대비 %): ('22)△5.0, ('23)△3.6, ('24)△3.6, ('25안)△2.9  
국가채무(GDP 대비, %): ('17) 34.1 → ('22) 45.9 → ('25안) 48.3

## Ⅱ. '25년 예산안 전체모습

### □ [총수입] 전년 대비 6.5% 증가한 651.8조원 [+39.6조원]

- 국세수입은 금년 기업실적 호조, 내년 대내외 여건의 완만한 회복 흐름으로 '24년 대비 +15.1조원 증가('24년 367.3 → '25년안 382.4조원)
- 세외수입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증가 등으로 +24.5조원 증가('24년 244.9 → '25년안 269.4조원)

### □ [총지출] 전년 대비 3.2% 증가한 677.4조원 [+20.8조원]

- 총지출 증가율은 세입여건, 지출소요 등을 감안하여 '24년 대비 소폭 상향('24년 2.8 → '25년안 3.2%)
- 재정운용혁신 노력으로 확보한 재원은 약자복지 등 민생사업,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과제에 과감히 투자

#### < 2025년 재정운용 모습 >

(단위: 조원, %)

	'24년 예산(A)	'25년 예산안(B)	증감(B-A)	
				%
◇ 총수입	612.2	651.8	+39.6	6.5
· 국세수입	367.3	382.4	+15.1	4.1
· 세외수입	244.9	269.4	+24.5	10.0
◇ 총지출	656.6	677.4	+20.8	3.2
· 예산	438.3	450.9	+12.6	2.9
· 기금	218.4	226.5	+8.2	3.7

□ [수지·채무] 관리재정수지  $\Delta$ 2.9%, 국가채무 48.3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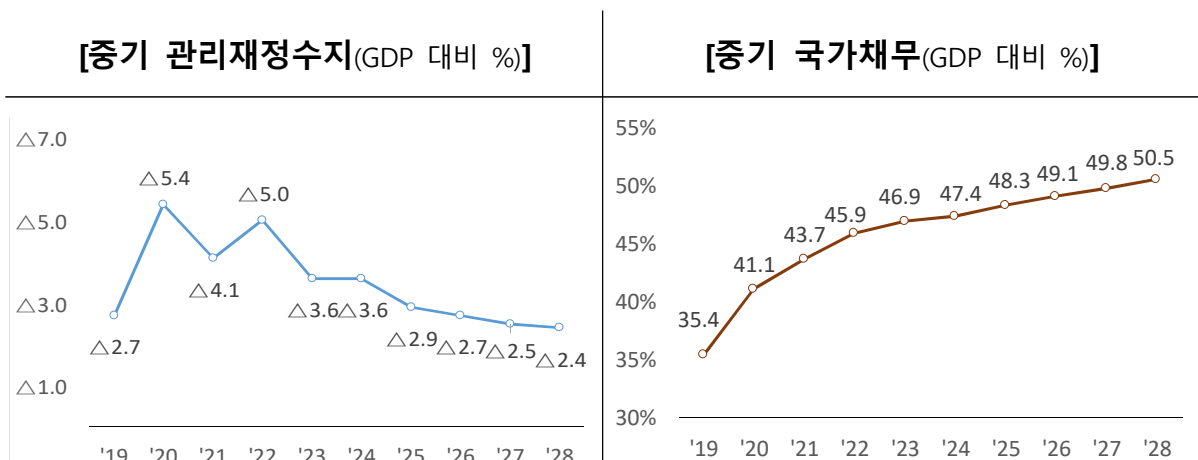
- 재정수지 개선, 채무 증가폭 억제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
  - 통합재정수지(GDP 대비)는 전년대비 0.8%p 개선( $\Delta$ 1.8 $\rightarrow$  $\Delta$ 1.0%)
  - 관리재정수지(GDP 대비)는 전년대비 0.7%p 개선( $\Delta$ 3.6 $\rightarrow$  $\Delta$ 2.9%)
  - 국가채무(GDP 대비)는 전년대비 0.8%p 증가(47.4 $\rightarrow$ 48.3%)

(단위: 조원, %)

	'24년 예산(A)	'25년 예산안(B)	증감(B-A)
◇ 통합재정수지 (GDP 대비)	$\Delta$ 44.4 ( $\Delta$ 1.8%)	$\Delta$ 25.6 ( $\Delta$ 1.0%)	+18.8 (+0.8%p)
◇ 관리재정수지 (GDP 대비)	$\Delta$ 91.6 ( $\Delta$ 3.6%)	$\Delta$ 77.7 ( $\Delta$ 2.9%)	+13.9 (+0.7%p)
◇ 국가채무 (GDP 대비)	1,195.8 (47.4%)	1,277.0 (48.3%)	+81.3 (+0.8%p)

□ [중기계획] 단계적 재정적자 축소로 국가채무 안정적 관리

- '25년 이후 관리재정수지(GDP 대비)는  $\Delta$ 3% 이내에서 단계적으로 개선
- 국가채무(GDP 대비)는 '28년 50% 수준으로 관리



### 〈 분야별 자원배분 모습 〉

	(조원)			
구 분	'24년 예산(A)	'25년 예산안(B)	증감 (B-A)	증감율
◆ 총지출	656.6	677.4	+20.8	3.2%
1. 보건·복지·고용	237.6*	249.0	+11.4	4.8%
2. 교 육	95.2*	98.5	+3.3	3.5%
3. 문화·체육·관광	8.7	8.8	+0.1	1.3%
4. 환 경	12.5	13.0	+0.5	4.0%
5. R&D	26.5	29.7	+3.2	11.8%
6. 산업·중소기업·에너지	28.0	28.3	+0.3	1.1%
7. SOC	26.4	25.5	△0.9	△3.6%
8. 농림·수산·식품	25.4	25.9	+0.5	1.9%
9. 국 방	59.4	61.6	+2.2	3.6%
10. 외교·통일	7.5	7.8	+0.3	3.7%
11. 공공질서·안전	24.4	25.1	+0.7	2.6%
12. 일반·지방행정	110.5	111.3	+0.8	0.6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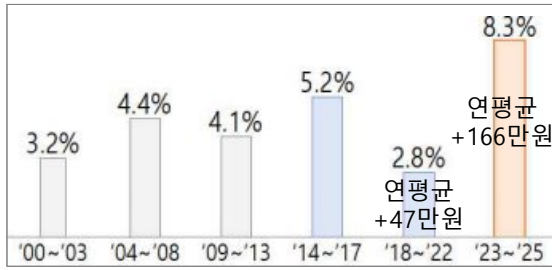
\* 유보통합에 따라 '24년 보육사업 예산을 복지분야에서 교육분야로 이관한 후의 규모

### Ⅲ. 투자중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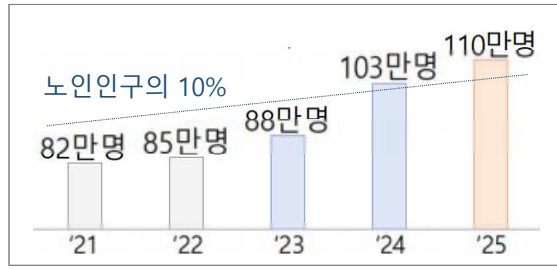
<p>목표</p>	<p>민생안정·역동경제로 서민·중산층 중심 시대 구현</p>		
<p>기본 방향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국민이 원하는 <b>민생과제</b>에 집중 투자</li> <li>• 우리 경제의 <b>경쟁력 제고</b>와 <b>사회구조 개혁</b></li> <li>• 재정운용혁신을 통해 <b>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</b></li> </ul>		
<p>투자 중점</p>	<p>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더 두텁고 더 넓은 기초생활보장</li> <li>◦ 노인·장애인·취약아동 맞춤형 보호</li> <li>◦ 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 도약 지원</li> <li>◦ 교육·주거 사다리 구축과 문화격차 해소</li> </ul>	
	<p>경제활력 확산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소상공인 전주기 맞춤형 지원</li> <li>◦ 농어민 소득 확충 및 농수산물 물가 안정</li> <li>◦ 선도형 R&amp;D 개혁과 첨단산업 육성</li> <li>◦ 수출모멘텀 확산과 중소·벤처기업 스케일업</li> </ul>	
	<p>미래를 준비하는 체질개선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일가정양립·돌봄·주거지원으로 저출생 대응</li> <li>◦ 필수의료 확충·지역의료 복원</li> <li>◦ 청년의 힘찬 미래도약 지원</li> <li>◦ 인재·산업·교통 혁신으로 지방시대 뒷받침</li> </ul>	
	<p>안전한 사회, 글로벌 중추 외교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신유형·고강도 재해에 대한 체계적 예방과 대응</li> <li>◦ 첨단·과학수사와 국민 권리구제 강화</li> <li>◦ 군 자공심 고취와 강한 군대 육성</li> <li>◦ 전략적 외교·ODA로 국익 창출</li> </ul>	
<p>재정 운용 혁신</p>	<p><b>현장수요 중심</b></p> <p>국민목소리 반영 수요자 맞춤형 지원</p>	<p><b>다부처 협업</b></p> <p>공동 기획·편성·집행 복잡한 문제 해결</p>	<p><b>지출 효율화</b></p> <p>타당성·효과성 재점검 재정전반 비효율 제거</p>

[ 2025년 예산 핵심사업 ]

① 생계급여 최근 3년간 연평균 +166만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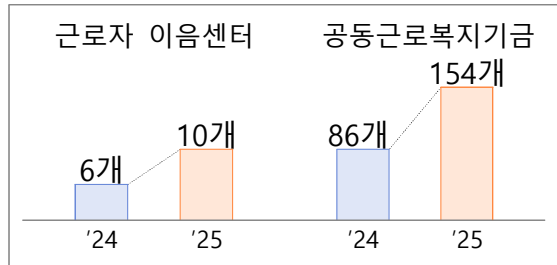
② 노인인구 10% 이상에 노인일자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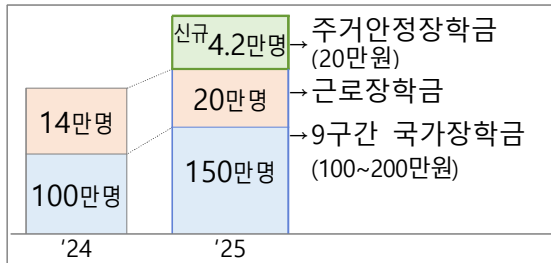
③ 최종증 장애인 촘촘한 돌봄체계

사각지대 해소	24시간	주간	긴급돌봄 센터 (2개소)	의료집중형 거주시설 (1개소)
	개별1:1	개별1:1	개별1:1	개별1:1
	개별1:1	그룹형1:1	개별1:1	그룹형1:1
		'24		'2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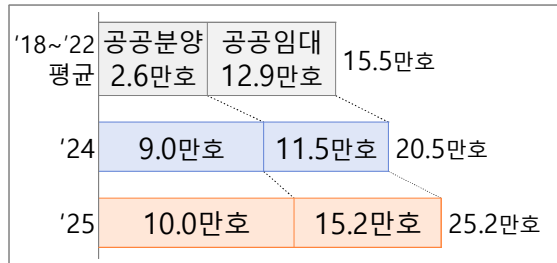
④ 미조직 근로자 이음센터 6→10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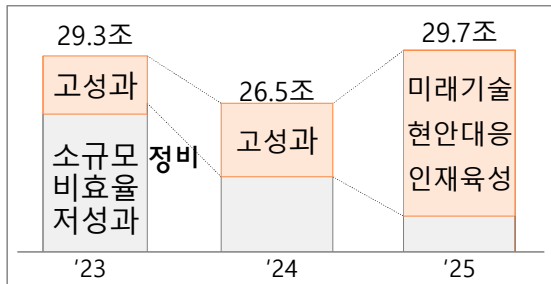
⑤ 국가장학금 100→150만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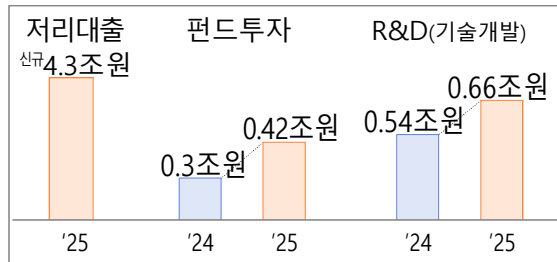
⑥ 공공분양·임대 역대최대 25.2만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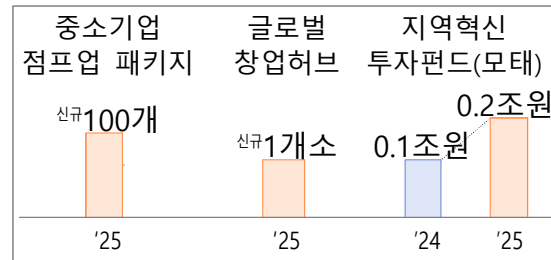
⑦ 선도형 R&D투자 시스템 개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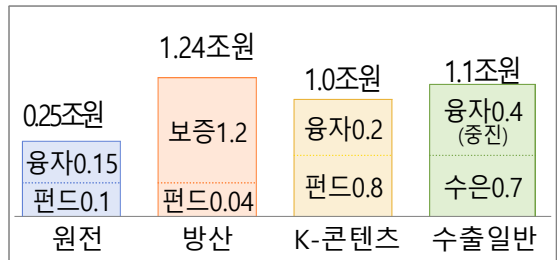
⑧ 반도체 설비투자 저리대출 4.3조원



⑨ 중소기업 점프업(100개사)



⑩ 원전·방산·K콘텐츠 등 수출금융 3.6조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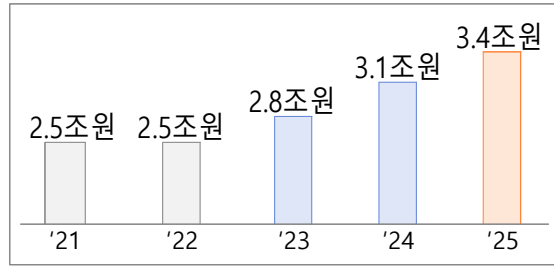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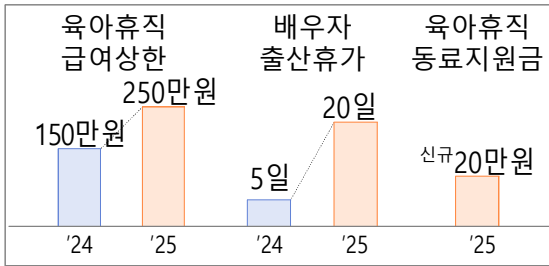
11 **소상공인 특화취업 프로그램(최대 1,310만원)**

<b>폐업</b> 사업체컨설팅 (1.2만개) 점포철거비 (250→400만원)	<b>취업준비</b> 사전교육수당 (60만원) 심층교육수당 (월50~110만원, 최대 6개월)	<b>구직</b> 성공수당 (190만원) 고용촉진장려금 (월30~60만원, 1년간)
--	---	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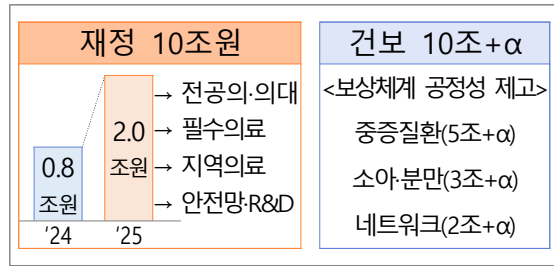
12 **농업직불 예산 3.1→3.4조원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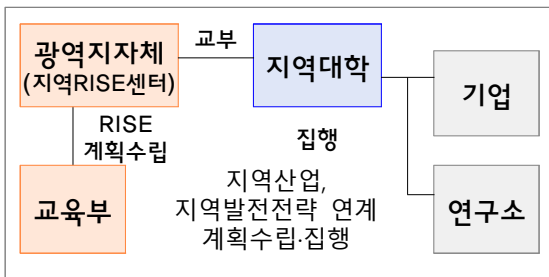
13 **육아휴직 급여상한 월150→250만원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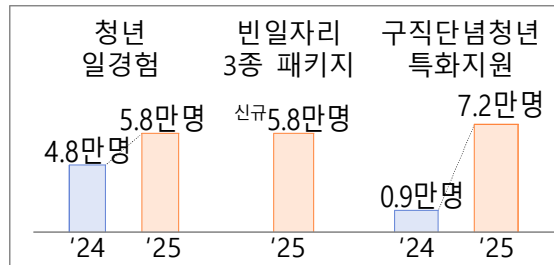
14 **의료개혁 5년간 20조원+α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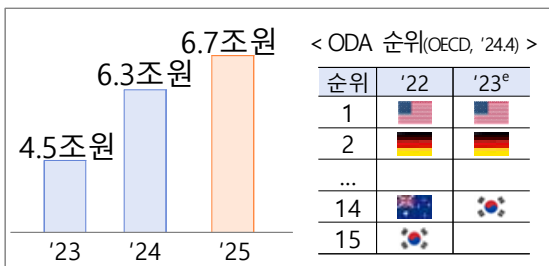
15 **지자체 중심 대학지원<sup>RISE</sup> 시행(2.0조원)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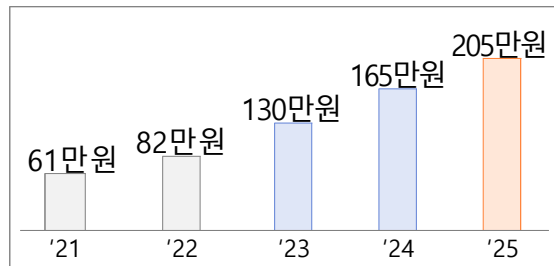
16 **청년일자리 특화지원 5.7→18.8만명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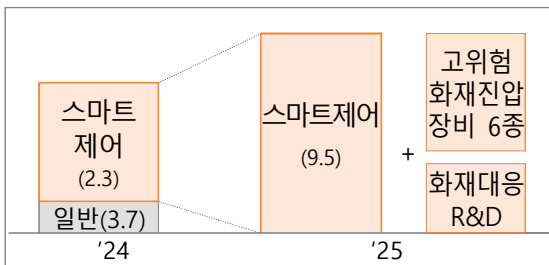
17 **전략적·국익 ODA 확대(+0.4조원)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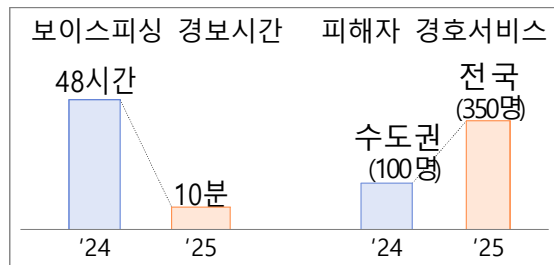
18 **병봉급 약속이행 월165→205만원**



19 **전기차 스마트제어 충전기 2.3→9.5만기**



20 **보이스피싱 경보 48시간→10분내**



# 1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

## ① 더 두텁고 더 넓은 기초생활보장

### 【저소득층】 “연간 생계급여액 +141만원 인상” (19.7→20.8조원)

- **(기초생보)** 기준중위소득 3년 연속 역대 최대 +6.42% 인상(4인)
  - 생계급여는 월간 급여액 +11.8만원(183.4→195.2만원, 4인 가구), 연간 급여액 기준 +141만원\*(2,200→2,341만원) 인상
    - \* 최근 3년 연평균 인상액은 +166만원으로 지난5년('17~'22) +47만원의 3배
  - 부양의무자 예외적용 기준 완화\* 등으로 3만가구 추가 지원
    - \* 부양의무자 예외 적용 소득(1→1.3억원)·재산(9→12억원) 기준 완화(+0.2만가구), 65~74세 노인 근로소득공제 +20만원 확대(+2.6만가구) 등
  -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생활유지비 2배 확대(월 6,000원→12,000원) 및 정신과 입원수가 12% 인상
    - 부양비\* 인하(15~30%→10%)로 급여 사각지대 완화(+0.3만명)
      - \* 수급대상자 소득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중 비율
  - '20년 이후 동결된 주거급여 수선유지비\* 대폭 인상(+29%)
    - \* (경보수) 457→590만원 (중보수) 849→1,095만원 (대보수) 1,241→1,601만원

(단위: 억원)

구 분	'24년	'25안	비고
- 생계급여	75,411	84,900	기준중위소득 6.42% 인상 등
- 의료급여	89,377	86,882	건강생활유지비 2배 인상(0.6→1.2만원) 등
- 주거급여	27,424	30,368	기준임대료 3.2~7.8%, 수선유지비 29% 인상

※ 내년 의료급여 예산은 의료급여기금 적립잔액(0.3조원) 활용으로 재정소요 절감

- **(바우처)** 영양취약계층\* 농식품바우처 전국 시행(1인 가구 월4만원), 환경민감계층\*\*에 환경보건이용권 신규 지급(1인 연10만원)
  - \* 중위소득 32% 미만 중 임산부·영유아·초중고생이 포함된 8.7만 가구
  - \*\* 수급자차상위 중 어린이·노인·임산부 1만명 대상 환경성 질환(아토피 등) 치료 지원

## 2 노인·장애인·취약아동 맞춤형 보호

### 【 장애인 】 “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신설” [6.4→6.8조원]

- **(돌봄)** **신규**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(2개소)를 신설하고, 장애인활동지원 확대(131→135시간, 12.4→13.3만명)
  - 미등록 장애아 발달재활서비스 연령 상향(6→9세 미만, +1.8만명)
  - **신규** 최중증장애인의 맞춤형 의료집중형 거주시설\* 시범 도입
    - \* 기존시설에 간호사 추가 배치(개소당 2명), 의료장비 보강 등 지원 → 24시간 의료지원
- **(일자리)** 민간취업 지원을 위해 장애인 고용장려금 +12만명 (63.3→75.6만명) 및 취업성공패키지(1.3→1.4만명) 확대
  - **신규** 표준사업장\* 확대시도 시설투자 지원(한도 10→15억원)
    - \*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표준사업장으로 지정시 시설투자비 75%까지 지원
  - 장애인 직접일자리 예산도 확충(3.2→3.4만명, +118억원)
- **(일상생활)** 온라인 신원 확인 가능한 **신규**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도입(68억원), 개인예산제 확대\*로 일상의 편의성·선택권 강화
  - \* (現) 개인별 장애인 활동지원액의 20% → (改)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(20%)도 추가

(단위: 억원)

구분	'24년	'25안	비고
- 장애인활동지원	22,846	25,323	인원(12.4→13.3만명), 시간(131→135시간)
- 발달장애인지원	3,577	4,030	발달장애인 돌봄 확대(2.1→2.3만명) 최중증 긴급돌봄센터 2개소 신설
- 장애아동가족지원	1,940	2,327	미등록 장애아 지원 확대(6세→9세 미만)
- 장애인고용장려금	3,234	3,774	고용장려금 인원 확대(63.3→75.6만명)
- 장애인일자리 지원	2,227	2,345	직접일자리 공급 확대(3.2→3.4만명)
- 모바일 장애인등록증	-	68	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도입 구축비

## 【 노인 】 “노인일자리 역대 최대 110만개 공급” [22.5→24.4조원]

- (소득) 노인인구 10% 이상으로 노인일자리 확대(103→110만개), 물가상승을 감안한 기초연금 인상(33.4→34.4만원, +1.6조원)
  - 경로당 냉난방비(+6만원)·양곡비 지원(+21만원) 단가 인상
- (활력) 신규노인 전용 평생교육바우처 신설(연35만원, 8,000명) 및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2배 이상 확대(8→20개소)
- (돌봄) 고령자복지주택 확대(연1→3천호, +948억원) 및 단지 입주자 대상 돌봄·건강·여가 등 복합서비스 시범 제공(4개소)

(단위: 억원)

구분	'24년	'25안	비고
- 기초연금지급	202,015	218,646	기초연금 단가 인상(33.4→34.4만원)
- 노인일자리	20,264	21,847	노인일자리 확대(103→110만개)
- 고령자 복지주택	470	1,418	고령자복지주택 공급 확대(연1→3천호)

## 【 한부모·아동 】 “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도입” [0.5→0.6조원]

- (한부모)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(추후 회수)하는 신규양육비 선지급제 도입(162억원)
  - \* (대상) 중위 100% 이하 가구, (지원내용) 자녀 1인당 월 20만원(최장 18년)
  - 한부모가정(중위 63% 이하) 아동양육비도 월 21→23만원 인상
- (취약아동) 보호출산\*아동 신규긴급위탁보호비 신설(월100만원, 300명)
  - \* 보호출산제: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의 임산부가 가명으로 출산·출생신고
  - 보호시설 퇴소에도 가정복귀가 곤란한 청소년 자립지원금\* 강화
    - \* (성폭력 피해아동) 50만원 신설, (원가정 복귀곤란 청소년) 40→50만원

(단위: 억원)

구분	'24년	'25안	비고
- 양육비 이행지원(선지급)	-	162	만18세 이하, 월20만원 한도
- 한부모 양육비 등 지원	5,356	5,528	월21→23만원으로 인상

### 3 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 도약 지원

#### 【저소득층】 “자활성공지원금 150만원 신설” (0.9→1.0조원)

- (자활근로) 인원 확대(6.9→7.2만명) 및 급여 3.7% 인상(+601억원)
  - 탈수급시 **신규** 최대 150만원의 자활성공금\* 신설(34억원)
  - \* 탈수급후 6개월 근로활동 지속시 50만원, 1년 경과시 100만원 지원
- (자산) 저소득층 희망저축계좌 정부지원금 인상(월평균 10→20만원\*) 및 저소득아동 디딤씨앗통장\*\* 대상 확대(수급자→차상위, +6.7만명)
  - \* (現) 360만원 저축, 720만원 자산형성(3년) → (改) 1,080만원 자산형성
  - \*\* 아동 1: 정부 2로 매칭(최대 10만원) → 만 18세 이후 자립용도 활용
- (자금지원) **신규** 저리 청년자립자금(2%, 12백만원) 공급(1.3만명)

#### 【고용취약계층】 “계속고용장려금 요건 완화” (0.4→0.5조원)

- (중장년) 정년도달 근로자 일부 재고용 시에도 장려금 지급\*, **신규** 인턴제 신설(0.9천명) 및 폴리텍 특화학과 개편으로 전직 지원
    - \* 계속고용제도(정년 연장, 정년 폐지, 재고용)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3년간 월30만원 지원(희망자 전원 → 일부 재고용 시에도 지급)
  - (전직준비) 생애경력설계(5.0→5.3만명), 전직스쿨 및 재도약(1.1→1.2만명)
  - (직업훈련) **신규** 폴리텍 신중년 특화학과 개편(5개과), **신규** 뿌리산업 교육센터(3개소)
  - (재취업) 기업-구직자 매칭을 위한 중장년 내일센터 확대(35→38개소)
- (경단여성) **신규** 새일센터 직업훈련 참여촉진수당 신설(월10만원, 4개월) 및 고용유지장려금 확대\*로 재취업 뒷받침
    - \* 새일여성인턴 고용유지장려금 확대(12개월 근속시 380→460만원)
  - (취약근로자) **신규** 노무제공자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신설(350명), 일용직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 확대(400→500만원)

## 【노동약자】 “미조직 근로자 이음센터 6→10개” (1.0→1.2조원)

- **(약자보호)** 근로자 이음센터 확대(6→10개)를 통해 분쟁조정·교육·컨설팅 원스톱 지원, 노무제공자 쉼터 확대(37→45개소)
  - 임금체불 대지급금(8.8→10.5만명), 체불청산용자(0.6→0.9만명),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금(1.6→3.6만명) 확대

(단위: 억원)

구 분	'24년	'25안	비고
- 임금체불 대지급금	4,747	5,293	8.8→10.5만명(도산시 2,100, 간이 1,000만원)
- 체불청산지원 용자	402	704	0.6→0.9만명(1인당 최대 1,500만원)
- 생활안정자금 용자	885	915	1.6→3.6만명(1인당 최대 2,000만원)

- **(이중구조개선)** 대기업·원청이 출연한 **공동근로복지기금** 확대(86→154개), 안전보건 상생협력\* 강화(3.6→3.8천개)

\* 정부와 모기업이 산재예방 컨설팅, 안전보건 물품보급 등 상생활동비용 지원

- 2·3차 협력사 상생협력 복지증진기금 업종 확대(3→4개) 및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지원\*(2→3개 지역)

\* 지자체 주도 지역주력산업 원하청 상생협력시 복지·안전 패키지 지원

(단위: 억원)

구 분	'24년	'25안	비고
○ 저소득층 일자리			
- 자활사업	7,499	8,206	6.9→7.2만명, 자활성공지원금(최대 150만원)
- 아동발달지원계좌	1,267	1,532	기초수급자→차상위 이하 대상 확대
- 청년자립자금(이차보전)	-	66	2% 금리, 12백만원 한도, 400억원 공급
○ 고용취약계층			
- 중장년 인턴제	-	36	중장년 인턴제 신규 지원(0.9천명)
- 계속고용장려금	350	357	요건 완화(희망자 전원 → 일부 재고용 허용)
- 새일센터 지정·운영	735	853	참여촉진수당 신설·고용유지장려금 확대
○ 노동약자 보호			
- 근로자 이음센터	19	44	개소수(6→10개소), 분쟁조정협의회 설치
- 공동근로복지기금	222	290	지원대상 기금(86→154개)

#### 4 교육·주거 사다리 구축과 문화격차 해소

##### 【교육기회】 “주거안정장학금 신설(월 20만원)” [9.3 → 9.5조원]

- (영유아) 0~5세 교육·보육료 지원,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교육·보육예산 이관(복지부→교육부)·지원으로 유보통합 뒷받침
- (초·중·고) **신규**부처(17개)·대학 협력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(320억원)
  - 저소득 우수학생 꿈사다리 장학금(월15~35만원) 지원 대상을 중·고교생에서 초5·6학년까지 확대(2→3천명)
- (대학) 원거리 진학한 기초·차상위 대학생(42천명)을 대상으로 **신규**주거안정장학금 월 20만원 신설(344억원)
  - 저소득 대학생 대상 근로장학금 14→20만명 확대(+1,667억원)
- (평생) 디지털 역량강화 등을 위해 평생교육바우처 확대(연35만원, 8→11.5만명), 대학에 **신규**AI·Digital 집중교육과정 신설(17개, 27억원)

##### 【주거】 “공공주택 역대 최대 25.2만호 공급” [20.5→25.2만호]

- (공공주택) 임대주택 11.5→15.2만호, 분양주택 9.0→10.0만호 등 역대 최대 25.2만호 공공주택 공급으로 서민 주거안정 지원
- (주거복지) 서민주거 핵심인 **非아파트** 공급 확대(2년간 16만호), 중산층 선호 **신규**든든전세(3만호)·**신규**기업형 장기민간임대 공급
  - (공공임대) 든든전세 3만호(시세 90%, 최대 8년 거주), 전세사기 주택매입(5→7.5천호)
  - (주택금융) 신혼부부버팀목(0.75→1억원), 신생아특례대출(1.3→2.5억원) 소득요건 상향
- (공급개선) **신규**22조원 규모 미분양\* 매입확약, **신규**신도시리츠 조성, **신규**정비조합 초기사업비 용자(20개소, 400억원)로 공급속도 제고
  - \* 수도권 공공택지 '25년까지 착공사업장(4만호 중 10% 미분양 추정), 뉴:홈 선택형 활용
  - 저층 주거지 환경개선 위해 **신규**뉴:빌리지 **신규**추진(30개, 930억원)

**【 문화 】 “취약계층 아동 ‘꿈의 스튜디오’ 신설” [0.8→1.0조원]**

○ **(취약계층)** 통합문화이용권 확대(13→14만원)하고, 장애예술인 창작 아카데미(1→3개소) 및 위기가정(한부모 등) 예술교육(40개소) 확충

- (향유권) 취약계층 유·청소년 프로스포츠 경기관람권 할인 확대(1→1.75만명)
- (사회이동성) **신규**생애주기·장애유형별 발달장애(ADHD 등) 특화 독서프로그램(2억원)
- (치유) 디지털과몰입·위기가정 청소년, 노숙인·재소자 대상 **신규**인문예술치유 지원

○ **(소외지역)** 문화로 지역의 삶을 바꾸는 대한민국 문화도시(13개, 400억원) 조성 및 박물관·미술관 지역순회(5개 권역) 지원

- (예술) **신규**장르별 공연예술 거점도시 조성(5개) 및 **신규**지역예술도약(80작품) 지원
- (관광) **신규**크루즈·전적지·자전거여행 등 테마별 지역관광 활성화(85억원)
- (스포츠) **신규**이스포츠 지역리그 출범(8개 지역), 국민체육센터(유아 3→9개, 시니어 8→20개)

○ **(미래세대)** 취약계층 아동 대상 ‘꿈의 스튜디오’ 및 어린이청소년 극단 신설, 신진예술인의 성장을 위해 중예산영화 제작지원(연 10편)

- (아동·청소년) **신규**취약계층 아동 ‘꿈의 스튜디오’(10개소), **신규**소극장 ‘학전’ 재대관
- (체육) 청소년(1,000→1,210명), 꿈나무(942→1,030명) 우수 체육인재 육성 확대
- (예술) **신규**중예산영화 제작 지원(100억원),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 확대(350→600명)

(단위: 억원)

구 분	'24년	'25안	비고
○ 교육기회			
- 유보통합	85,416	84,735	보육예산 이관(5.4조원), 누리과정(3.1조원)
- 맞춤형국가장학금	5,633	7,682	근로장학금(14→20만명), 주거안정장학금 신설(월20만원)
- 평생교육바우처	262	286	8→11.5만명(일반·장애인·노인)
○ 주거			
- 공공주택	181,276	148,996	20.5→25.2만호, 집행개선(일시불→3년 분할)
- 뉴·빌리지	-	930	30개소 신규 반영
- 든든전세주택	-	8,627	3만호 공급(매입형 2.5만, 임차형 0.5만)
○ 문화격차 해소			
- 통합문화이용권	2,397	2,636	13→14만원, 258→264만명
- 대한민국 문화도시	-	400	13개 도시 지역고유문화 스케일업 지원
- 취약아동 ‘꿈의 예술단’	107	125	시각예술분야 ‘꿈의 스튜디오’ 10개소



## [ '25년 달라지는 모습 ]

분 야	주요 프로그램	'24년	'25안
저소득층	생계급여액 (4인 가구)	연간 2,200만원	연간 2,342만원
	주거급여 (수선유지비, 대보수)	1,241만원	1,601만원
	농식품 바우처	시범실시 (24개 지자체)	전국 확대
장애인	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	-	2개소
	장애인 고용장려금	63.3만명	75.6만명
노인	노인일자리	103만개	110만개
	고령자 복지주택	1천호	3천호
취약아동	한부모 양육비 선지급제	-	만 18세까지 월 20만원
	보호출산아동 긴급위탁보호비	-	월 100만원
일자리	자활성공금	-	150만원
	근로자 이음센터 <small>* 분쟁조정·교육·컨설팅 지원</small>	6개소	10개소
교육 · 주거	저소득층 주거안정장학금	-	월 20만원
	꿈사다리 장학금	중·고교생	중·고교생 + 초 5·6년생
	공공임대·분양	20.5만호	25.2만호
	든든전세 <small>* 무주택 유자녀, 최대 8년 거주</small>	-	3만호

## 2 경제활력 확산

### 1 소상공인 전주기 맞춤형 지원

○ **(비용경감)** 그간 누적됐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3종 세트 지원

- ① 2조원 규모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 지원
- ② 7% 이상 → 4.5% 대환대출 프로그램 지속 지원(0.2조원)
- ③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지원대상 및 연장기간 확대(최대 5년)

- **신규**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·택배비를 최대 30만원 지원하고, 키오스크·**신규**SaaS프로그램 등 스마트기기·SW 보급(0.6→1.1만개)

○ **(매출신장)** 스케일업을 위해 유망 소상공인 전용자금(0.4조원), e-커머스사와의 협업(3천개), 상권발전기금(2개소) 신규지원

- (전용자금) 스케일업(0.2조원)+성과연동 특례보증(0.2조원)+사업화(300억원)
- (플랫폼 협업) **신규**TOPS 프로그램\*(150억원) 및 **신규**상생성장지원자금(1,000억원)  
\* 스토리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, e-커머스사와 정부가 1:1 매칭지원
- (지역상권) **신규**상권발전기금(20억원),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(5.0→5.5조원)

○ **(재기지원)** 새출발기금 30→40조원+α 확대\*하고, 점포철거비 인상(250→400만원), 특화취업 프로그램 신설 등 단계별 지원

\* 사업영위 기간 '23.11월→'24.6월로 확대, 교육이수시 원금 감면율 10%p 상향

< 소상공인 단계별 재취업 지원 >

폐업 지원	취업 준비	구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✓ 점포철거비 지원 확대 (250→400만원)</li> <li>✓ 폐업 컨설팅, 법률자문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✓ 사전교육 참여수당 (60만원)</li> <li>✓ 심층교육 훈련수당 (최대6개월, 월50~110만원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✓ (취업자) 성공수당 (190만원)</li> <li>✓ (고용주) 고용촉진 장려금(1년간, 월30~60만원)</li> </ul>

(단위: 억원)

사업명	'24년	'25안	비고
- 배달·택배비 지원	-	2,037	영세 소상공인 67.9만개, 연 30만원
- 마일스톤 용자	-	1,500	소상공인 졸업 후보기업 1,500개
- TOPS 프로그램	-	150	플랫폼사 발굴 유망업체 3,000개 육성
- 소상공인 채무조정	3,300	5,000	새출발기금 30→40조원+α 뒷받침
- 점포철거비	547	1,200	지원단가(250→400만원), 지원대상(2.2→3만명)

## 2 농어민 소득안정 및 농수산물 물가안정

### 【농어민 지원】 “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” (5.5→6.4조원)

- (소득안정) 수입안정보험 전면도입\*(+0.2조원), 면적직불금 단가 제도도입 이후 최초인상(+5%) 등 직불금 대폭 확대(3.1→3.4조원)

\* 수입안정보험 가입품목 확대(9→15개) 및 가입인원 확대(가입률 1→25%)

- (경쟁력) 신규대규모 스마트팜(4개소), 신규스마트 과수단지(3개소) 등 스마트화, 농·어촌청년주택(+13개소) 및 수출바우처 확대

- (스마트화) 신규대규모 임대형 스마트팜(4개소), 신규스마트 과수원특화단지(3개소), 신규스마트 가두리 양식장(2개소)
- (청년농) 청년보금자리주택 조성(+10개소), 청년영농 정착지원금(+5,000명), 신규청년귀어종합타운(3개소), 신규청년창업·임대형양식장(3개소)
- (수출) 수출바우처(농식품325→360개사, 수산물62→100), 글로벌 박람회 참가(1,333→1,573개사)

- (정주여건) 농촌공간정비(+30개소) 및 왕진버스(12→15만명) 지원

- (주거·생활 여건) 농촌공간 정비(+30개소), 어촌신활력증진(+26개소)
- (사회서비스) 여성 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(4.6→6.1만명), 농촌 왕진버스(12→15만명)

### 【농수산물 물가】 “비축물량 17%↑, 온라인도매 활성화” (14→15조원)

- (수급관리) 신규사과 신규비축(2만톤) 등 농산물 비축(28.6→33.4만톤) 및 계약재배(101.4→105.0만톤) 확대로 선제적 수급관리 강화

- (유통구조)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규산지-소비지 온라인거래 물류비 지원(67억원), 정산·결제자금 확대(+185억원)

- 농산물 직거래 용자 확대(+70억원) 및 신규수산물직매장 설치(30개소)

(단위: 억원)

구분	'24년	'25안	비고
-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	31,056	33,575	면적직불 단가 인상(5%),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
- 비축 지원	7,249	8,125	사과(2만톤) 등 농산물 비축(28.6→33.4만톤) 확대
- 농어촌청년보금자리주택	152	338	신규 조성(8→13개소), 단가 인상(90→100억원)
- 농수산물온라인거래활성화	532	801	물류비(67억원), 결제·정산자금(+185억원)

### 3 선도형 R&D 개혁과 첨단산업 육성

#### 【R&D 시스템 개편】 “신성장·임무형 R&D 강화” [26.5→29.7조원]

- (미래도전형) 3대 게임체인저(AI·바이오·양자) 기술주권 확립 (2.8→3.5조원)하고, 초격차 선도기술\*로 新시장 선점

\* 반도체-디스플레이, 이차전지, 통신, 차세대 원전, 우주, 수소, 사이버보안 등

- (인공지능) 신규 AI반도체 활용 K-클라우드(370억원), 차세대 범용AI 개발(40→180억원)
- (바이오) 전주기 협업 프로젝트(1,873→2,832억원), 난제해결 ARPA(495→701억원)
- (양자 플래그십) 신규 1,000큐비트 양자컴퓨터(98억원), 신규 양자컴퓨팅 서비스(59억원)

- (공공·안전R&D) 신유형 재난, 신종범죄 등 국민안전 직결 R&D, 기후변화·국가임무 등 공공문제 해결 지원(3.4→3.7조원)

- (범죄안전) 신규 신종 보이스피싱 조기 탐지(45억원),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기술(161→210억원)
- (수소) 신규 대용량 청록수소 공급시스템(30억원), 수소배관망국산화(5→39억원)

- (젊은 연구자) 신규 한국형 Stipend 신설(월박사 110, 석사 80만원 보장), 신규 이공계 석사 장학금 도입(1,000명, 연500만원), 연구장려금 확대(2,472→5,131명)

- (기업R&D·기초연구) 특화형 기술창업(TIPS) 확대(150→180개), R&D 기업대상 기술사업화 융자 신설(0.1조원) 등 투자방식 다변화

- 기초연구는 우수과제 후속연구, 정책 아젠다 연구, 신종·고난도 개척연구 프로그램 신설 등 수월성 트랙 확대(2.6→2.9조원)

(단위: 억원)

구분	'24년	'25안	비고
- 미래도전 R&D	5.4조원	7.1조원	신규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도기술(178억원), 소형 원자로(iSMR) 기술개발(607→859억원)
- 3대 게임체인저	27,755	35,446	신규양자 컴퓨팅·통신·센서 플래그십(252억원), 신규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(290억원)
- 공공안전 R&D	33,783	36,666	리튬기반 배터리 화재대응 R&D(51억원)
- 젊은 연구자 지원	5,623	7,100	신규 Stipend 신설(600억), 석박사 연구장려금(+2659명), 대통령과학장학금(120→1215명, 신규 석사 1천명 포함)
- 기초연구	26,326	29,371	신규신생·미개척분야 연구(150개), 신규 우수연구자 후속연구 이어달리기(750억원)

**【 ABC+ 첨단산업 】 “반도체 저리대출 4.3조원 공급” (5.0→6.2조원)**

○ (**AI**인공지능) **신규** AI혁신펀드 1천억원 조성(재정 450억원), 차세대 PIM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개발 등 AI G3 도약 지원(1.4→1.8조원)

- (R&D) PIM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원천기술 확보('22~'28, 총사업비 4,027억원)
- (인프라) 국민생활·안전 AI반도체 4대 실증 프로젝트(158→298억원)
- (인재양성) **신규** AI연구거점 조성(1개), **신규** AI융합혁신대학원(9개)

○ (**Bio**바이오) 보건 난제 해결을 위한 **한국형 ARPA-H\***(495→701억원), **신규** 제조 혁신 바이오 파운드리 센터(113억원) 투자(2.0→2.3조원)

\* 암 발생률 △50%, 고가 의약품 1/100 등 도전적 문제해결 R&D ('23~'32, 1.2조원)

- (R&D) 한국형 ARPA-H(495→701억원), 보스턴-코리아 프로젝트(854→1,470억원)
- (제조) **신규** 바이오 파운드리 센터 설립 및 자동화장비 도입(113억원)
- (디지털 융합) 국가바이오 플랫폼 구축(100만명분 검체 확보, 604→1,118억원)

○ (**Chips**반도체) 대규모 투자를 위한 **신규** 저리대출 4.3조원 신규공급, 인프라 신속지원 등 26조원 반도체 대책 뒷받침(1.3→1.7조원)

- (금융) **신규** 저리대출 4.3조원(0.25조원), **신규** 생태계 펀드 0.3→0.42조원(300억원)
- (R&D) **신규** 첨단패키징(178억원), **신규** K-클라우드(370억원) 등 첨단기술개발(+0.1조원)
- (인력·인프라) **신규** 설계특성화대학(2개소, 20억원), **신규** 국도45호선 착수비(7억원)

○ (**Plus+**전략산업) **신규**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(4개), 배터리·**신규** 디스플레이 아카데미(1,700명) 및 미래차 부트캠프 신설(2개소)

- (이차전지) **신규** 특화단지 기반시설(4개단지), 배터리 아카데미(870→1,000명)
- (디스플레이) **신규** 아카데미 신설(700명), **신규** 차세대 iLED 선도기술(180억원),
- (모빌리티) UAM 도심지 실증시설(+3개, +41억원), **신규** 미래차 부트캠프(2개교, 30억원)

(단위: 억원)

구 분	'24년	'25안	비고
- PIM AI 반도체 기술개발	574	700	PIM(Processor-In-Memory) 반도체 기술개발
- 한국형 ARPA-H(R&D)	495	701	고령화·필수의료 등 바이오 난제 해결
- 반도체설비투자 저리대출	-	2,500	반도체 생태계 전문분야 저리대출 4.3조원
- 배터리·디스플레이 아카데미	57	97	배터리(870→1,000명), <b>신규</b> 디스플레이(700명)

#### 4 수출 모멘텀 확산과 중소·벤처기업 스케일업

### 【수출지원】 “원전·방산·콘텐츠 펀드 신설” (2.1→2.9조원)

- **(원전)** 체코 원전 계기로 수출부흥 확산을 위해 **신규** 원전산업 성장펀드 1천억원(재정 400억원), 원전생태계융자 1,500억원 공급
  - SMR 차세대 원전 개발, 안전성 확보 등 원전R&D 확대(0.3→0.4조원), 해외진출을 위한 홍보·네트워크·역량 강화(85→114억원)
- **(방산)** 수출 규모 확대에 맞춰 **신규** K-방산 수출펀드 400억원(재정 200억원) 및 **신규** 방산 수출보증 1.2조원 신규 공급
  - 글로벌 방산기업 부품 수출 위한 **신규** 중소기업 제품화 지원(77억원)
- **(K-콘텐츠·연계상품)** **신규** 대규모 한류콘서트(Beyond-K Festa, 80억원), **신규** 글로벌리그펀드 조성(0.1조원)으로 K-콘텐츠 및 연계 수출 지원
  - K-콘텐츠 해외박람회(3→5회), 해외거점(+5개소) 등 해외진출 뒷받침

- (K-Food+) 수출바우처 확대(387→460사), 국제인증 취득 지원(128→150개사)
- (K-뷰티) **신규** 해외시장정보(10개국), **신규** 피부특성데이터(수출유망 1개국), 해외홍보관(1→2개국)

- **(수출기반)** 대규모 해외 수주를 위한 수은 출자(1,000억원) 및 글로벌 PIS펀드(200→300억원), 조선업 RG보증 0.2조원 반영

- (인프라) 중소·중견 수출바우처 확대(0.39→0.45만개사), 해외전시회 확대(0.42→0.45만개사),
- (금융) 중소기업 마케팅·인증·제품개발 등 시설·운전자금 지원 확대(1,894→3,825억원)
- (KOTRA) **신규** AI기반 맞춤형 수출지원 플랫폼, **신규** 테크기업 해외로드쇼·국내상담회(5회)

(단위: 억원)

구분	'24년	'25안	비고
- 원전산업 성장펀드	-	400	1,000억원 규모 펀드 조성
- K-방산 수출펀드	-	200	연간 약 20개 기업, 약 20억원 투자자금
- 수출입은행출자	-	1,000	대규모 해외수주, 전략산업 중소·중견 지원
- 무역보험기금출연	450	800	RG특례보증(400억원), 방산수출보증(400억원)
- K-콘텐츠 펀드	-	400	해외VC 국내 운용가능 펀드 조성(0.1조원)

## 【중소벤처】 “점프업 패키지 · 지역혁신벤처펀드” [2.1→2.9조원]

- **(중소기업)** 제조기업 스마트화 및 **신규**테크서비스기업 수출바우처 (140억원) 지원, 중견기업으로 **신규**‘점프업’ 패키지 신설(100개사)
  - **신규** 中企-유학생 연계 프로그램(15억원), **신규**숙련인력비자 전환을 위한 현장방문형 한국어 교육(31억원) 등 우수외국 인력 확보
    - (스마트) **신규**지역특화 제조AI센터(3개소, 60억원), 스마트공장 고도화(865→985개, +169억원)
    - (해외진출) **신규**클라우드·데이터센터 등 서비스기업 수출바우처 확대(400개사, 140억원)
    - (점프업 패키지) **신규**유망기업 컨설팅-바우처-스케일업금융 지원(100개사, 699억원)
- **(벤처)** 국내스타트업 해외진출 및 해외스타트업 국내안착 지원, 지역혁신벤처펀드 출자(1→2천억원) 등 비수도권 창업기반 강화
  - (아웃바운드)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 20% 이상 확대(287→353개사, +100억원)
  - (인바운드) 국내외 스타트업, VC가 모이는 **신규**글로벌창업허브 구축(319억원)
  - (지역창업) 지역혁신벤처펀드 출자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(1,000→2,000억원)

## 【녹색전환 · 무역장벽】 “녹색전환보증 1.5조원 공급” [1.1→1.2조원]

- **(녹색금융)** 탄소저감설비 도입 촉진을 위해 **녹색전환보증**(1.0→1.5조원), **펀드·용자**(5.4→7.4조원) 등 공급 확대
  - (보증지원) 기후대응보증(840→1,000억원), **신규**녹색기술산업보증(400억원)
  - (펀드·용자) 녹색인프라 수출펀드(300→600억원), 녹색정책금융 활성화(용자 4.8→6.8조원)
  - (채권발행) 녹색유동화증권 발행(150개사), 녹색채권 발행지원(25→27개사)
- **(자원순환)** 공공열분해시설 등으로 폐자원에너지를 활용하고 **신규**사용후 배터리활용체계(66억원),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(7→15개소) 투자
- **(무역장벽 대응)** EU CBAM 등 대비 중소기업 컨설팅(110→185개), 배터리·자동차 등 주력산업 탄소발자국 측정·DB화(150→250개)
 

(단위: 억원)

구 분	'24년	'25안	비고
- 스마트공장 고도화	2,191	2,359	(‘23) 715개, (‘24) 865개, (‘25) 985개
- 글로벌기업 협업	430	530	287→353개 확대, 기업당 2억원
- 녹색정책금융활성화	319	540	용자규모 4.8→6.8조원

## [ '25년 달라지는 모습 ]

분 야	주요 프로그램	'24년	'25안
소상공인	배달·택배비 지원	-	연 30만원
	스케일업 자금	-	0.4조원
	새출발기금	30조원	40조원+α
	폐업점포 철거비	250만원	400만원
농어민	농산물 수입안정보험	시범사업 (9개 품목)	전면 실시 (9개 전면, 6개 시범)
	직불금	3.1조원	3.4조원
R&D	3대 게임체인저 * AI, 바이오, 양자	2.8조원	3.5조원
	한국형 Stipend	-	박사 110만원 석사 80만원
	이공계 석사 장학금	-	1,000명
	신종감염병 백신(mRNA) 개발	-	290억원 ('28년까지 개발 완료)
첨단산업	AI 혁신펀드	-	1천억원
	바이오파운드리 센터	-	1개소
	반도체 등 첨단산업 저리대출	-	4.3조원
수출 중소벤처	원전 수출 생태계 지원	0.8조원	1.0조원
	중소기업 점프업 프로그램	-	100개사
	글로벌기업 협업프로그램	287개	353개
	글로벌 창업허브	-	1개소



### 3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개선

#### 1 일가정양립·돌봄·주거 지원으로 저출생 대응

- **(일가정양립)** 육아휴직급여 상한 인상(월150→<sup>최대</sup>250만원),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확대(5→20일), **신규** 단기 육아휴직 도입
    - 사업주와 동료의 부담도 경감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지원금 인상(80→120만원) 및 **신규**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(월20만원)
      - (부모지원) 육아휴직 급여상한 인상(150만원 → 1-3개월 250, 4-6개월 200, 이후 160만원),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(5→20일), **신규** 단기 육아휴직(연 1회, 2주) 도입
      - (기업부담) 대체인력지원금 확대(육아휴직 재신설, 파견근로자 허용, 80→120만원) **신규** 육아휴직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(월 20만원, 1.9만명)
  - **(돌봄)**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기준·비율 대폭 확대\*(+456억원), **신규** 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서비스 신설(65개소, 13억원)
    - \* (지원대상) 기준중위 150% → 200% 이하(+1만가구) / (지원비율) +5~10%p
  - **(주거지원 등)** 신혼·출산부부 저금리 주거자금 지원(소득요건 완화, +0.7조원) 및 임신·난임 관련 의료비 지원 강화
    - (주거지원) 신생아특례 대출 소득요건 완화(1.3억→2.5억원 이하, 3년 한시, +6,585억원) **신규** 시세 대비 저렴한 **신규** 3만호 공급(+8,627억원)
    - (임신지원) **신규** 필수 가임력 검사 지원(최대 1→3회) 확대, 생식세포 보존비 지원
- 다자녀 가구 대상 전기차 구매보조금 한도 상향(40→<sup>최대</sup>300만원) 및 K-패스 할인율 확대(<sup>일반</sup>20%→30~50%)로 다자녀 혜택 강화

(단위: 억원)

구분	'24년	'25안	비고
- 육아휴직급여	19,869	34,030	육아휴직급여 상한(150→ <sup>최대</sup> 250만원) 등
- 출산육아기장려금	1,806	3,115	대체인력지원금 단가 인상(80 → 120만원)
-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	-	252	육아휴직 동료의 업무 분담시 지원(월 20만원)
- 아이돌봄지원	4,679	5,134	지원기준 완화(기준중위 150→200% 이하) 등
- 든든전세	-	8,627	3만호 공급
- 모자보건 사업	245	276	필수가임력 검사(최대 1→3회), 생식세포 보존비

## 2 필수의료 확충 · 지역의료 복원

5년간 “국가재정 10조원(‘25년 2조원) + 건강보험 10조원+α” 투자

- (전공의-의대<sup>0.8조원</sup>)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(1~8개과\*) 지원(0.4조원), 신규 의대증원에 따른 교수·교육시설 확충(0.4조원)

\* (‘24) 소아과 → (‘25) 내과, 외과, 산부인과, 소아과, 응급의학과, 흉부외과, 신경과, 신경외과 등 8개 필수과목

- (수련비용) 신규전공의 수련비용(9천명 대상, 교육비 등 직접비용, 0.3조원)
- (수당) 전공의(220→4,600명, 월100만원), 소아·분만 전임의(140→300명, 월100만원)
- (의대지원) 의대 시설·장비 확충(0.4조원), 국립대 의대 교수 330명 증원(260억원)

- (필수의료<sup>0.3조원</sup>)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, 특수목적 음압구급차 확충, 양성자 암치료기 도입 등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(0.3조원)

- (소아)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확충(12→14개소), 달빛어린이병원(45→93개소)
- (응급) 응급헬기(9→10대, 출동수당 30만원), 특수목적 음압구급차(14→56대)
- (암) 소아암센터 장비 확충(5개소, 25억원), 양성자 치료기 도입(179억원)

- (지역의료<sup>0.6조원</sup>) 권역책임·지역거점병원 시설·장비 현대화(0.3조원), 중앙-권역-지역간 협진(0.1조원), 신규 지역필수의사제 도입

- (권역책임) 권역책임의료기관(17개) 수술·중환자 진료역량 고도화(0.1조)
- (지역거점) 지방의료원·적십자병원의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비 한시 지원(41개소, 0.2조)
- (협진진료) 중앙-권역-지역센터간 협진 운영비(0.1조원), 중환자실 원격 협진(2개 권역)

- (안전망·R&D<sup>0.3조원</sup>)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(0.3→3억원), 신규 필수 과목 의료진 보험료 지원, 지역거점병원·의과학자 R&D(0.3조원)

### ③ 청년의 힘찬 미래도약 지원

- **(일자리)** 일경험 확대, 구직단념청년 지원, 빈일자리 채용 패키지 등을 통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과 미스매치 해소
  - 실질적 직무경험 가능한 인턴형(1~5개월)·프로젝트형(2개월 내외) 중심으로 청년일경험 대폭 확대(4.8→5.8만명)
  - **신규** 취업·자격증 특강 등 미취업졸업생 특화지원 신설(6만명), 구직단념청년 취업프로그램(5~25주 이상) 확대(0.9→1.2만명)
  - **신규** 특화훈련 - 일자리도약장려금(사업주 + 취업청년) - 기술연수(3~6개월)의 빈일자리(10개 업종) 채용 3종 패키지 신설(5.8만명)
- **(교육)** 국가장학금 9구간까지 지원(1~2백만원, 100→150만명)하고, 첨단산업 인재양성 위한 부트캠프(2개교), 특성화대학(7개교) 확대
  - (부트캠프) 대학·기업 공동 단기집중 교육 제공 및 채용연계(미래차 분야 +2개교)
  - (특성화대학) 산업계 수요 기반 인재양성·교원확보·기반시설 조성(21→28개교)
- **(주거·자산)** **신규** 청년주택청약 당첨시 분양가의 80%까지 저리(최저 2.2%)로 대출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(0.8조원)
  - 청년도약계좌 정부 매칭지원 한도 확대(월 40~70 → 월 70만원)
- **(복지·문화)** 고립·은둔청년 대상 온라인 발굴체계를 마련하고 정서·심리치료, 자조모임 등 사회복지 지원(1천명)
  - **신규** 고독사 위험 청년에 대한 안부문자 및 멘토링 운영(5천명)

(단위: 억원)

구분	'24년	'25안	비고
- 청년 일경험 지원	1,718	2,187	청년 일경험 지원 확대(4.8→5.8만명)
- 구직단념청년 지원	428	728	<b>신규</b> 졸업생 특화 취업지원(6만명), 청년도전지원 확대(0.9→1.2만명)
- 빈일자리 3종 패키지	-	852	<b>신규</b> 빈일자리 특화 취업지원(1.3만명), 도약장려금(4.5만명), <b>신규</b> 기술연수(200명)
- 맞춤형 국가장학금	47,205	53,134	국가장학금 9구간 확대
- <b>신규</b> 청년주택드림대출	-	7,507	최저 2.2% 금리 대출 제공(1.1만명)
- 청년도약계좌	3,682	3,750	정부 매칭지원 한도 확대(월40~70 → 70만원)

#### 4 인재·산업·교통 혁신으로 지방시대 뒷받침

- **(지방인재)** 지자체·대학이 주도적으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RISE 본격 시행(1.2→2.0조원)
  - **신규** 지역인재전형 확대로 지역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(1,600명, 17억원)
- **(지역산업)** **신규** 지역 주력산업 중소기업 R&D 신규지원(216억원) 하고 지역투자보조금 한도확대(투자건당 100→150억원)
  - 특화산업 연계 지역대학 내 창업(1→10개, +100억원) 및 지역 우수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(100개사, +26억원) 뒷받침
  - 청년의 **신규** 지역산업 맞춤형 취업·정착 패키지 지원(5개, 75억원)
- **(교통혁신)** 지역거점 도시철도(8개 노선) 및 신공항(8개 공항) 투자
  - (도시철도) 울산 1호선·대구 엑스코선 등 지역거점 도시철도망 구축(2,428→3,473억원)
  - (고속도로·철도) 지하고속도로 신설(용인-서울), 평택~오송 고속철 선로 확대(1,415→2,500억원)
  - (신공항) 가덕도·대구경북 등 8개 신공항 적기개항 지원(6,978→1조 1,505억원)
  - (철도 지하화) 도시 단절을 초래하는 **신규** 도심지 철도시설 지하화 추진(2개소, 20억원)
  - K-패스 신규가입자 2배 확대 및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확충
    - (K-패스) 신규가입자 185→360만명, 다자녀가구 할인율 **일반** 20%→30~50%(735→2,375억원)
    - (교통편의) 중증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입(588→635대, 603→649억원)  
준공영제 노선 확대(214→250개), 도서지역 여객항로지원 확대(11→15개)
- **(지역인프라)** 노후 교량·터널 보수(2,513→2,689개), 국도 병목구간 개선(75→100개) 등 지역밀착형 인프라 투자(6.4→7.3조원)
  - 임대주택리츠(1.0→<sup>최대</sup>1.5만호), 기축매입임대 지방물량 확대(1.1→1.6조원)

(단위: 억원)

구 분	'24년	'25안	비고
-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	12,025	20,010	지역에 지역대학 행·재정권한 위임·이양
- 지역투자촉진보조금	2,079	2,209	투자건당 지원한도 100→150억원
- 가덕도신공항건설	5,362	9,640	'29년 개항 위한 착공 소요 반영
- 준공영제	998	1,638	준공영제 노선 214→250개 확대

## [ '25년 달라지는 모습 ]

분 야	주요 프로그램	'24년	'25안
<b>저출생 대응</b>	육아휴직 급여상한	150만원	250만원(~3개월) 200만원(4~6개월) 160만원 (이후)
	배우자 출산휴가	5일	20일
	육아휴직 동료 업무분담지원금	-	월 20만원
	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기준	기준중위 150% 이하	기준중위 200% 이하
	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	1.3억원 이하	2.5억원 이하
<b>의료개혁</b>	전공의 수당	360명	4,600명
	국립의대 교수 증원	-	+330명
	달빛어린이병원	45개소	93개소
	중환자실 원격 협진	-	2개소
	무과실 분만 보상한도	0.3억원	3억원
<b>청년</b>	빈일자리 채움 3종 패키지 <small>* 특화훈련 - 장려금 - 기술연수</small>	-	5.8만명
	국가장학금	100만명	150만명
<b>지방시대</b>	RISE	시범사업 (1.2조원)	본격시행 (2.0조원)
	지역투자촉진보조금 지원한도	100억원	150억원
	국도 병목지점 개선	75개	100개

## 4 안전한 사회, 글로벌 중추 외교

### ① 新유형 · 高강도 재해에 대한 체계적 예방과 대응

#### 【복합화재】 “전기차 스마트제어 충전기 2.3→9.5만기” (0.9→1.2조원)

- (전기차) 전기차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 확대(2.3→9.5만기)
  - 무인파괴방수차 도입 확대(+6대), 대형 복합화재 대응을 위한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추가 구축(2→3개 권역, +92억원)
    - (전기차) 新규질식소화덮개(41개), 新규이동식 조립수조(11개), 新규관통형 방사장치(11개)
    - (선상화재) 新규국고여객선 전용 전기차화재 진압장비(29척)
  - 리튬배터리 화재대응 기술 등 R&D 투자 확대(39→129억원)
- (화학사고) 중소사업장 화학물질 화재 예방지도 확대(2→4천개소), 新규고위험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 컨설팅 신설(500개소, 12억원)

#### 【자연재해】 “지역단위 풍수해 종합정비 18→35개소” (4.7→5.2조원)

- (집중호우) 지역단위 수해예방 인프라 구축 대폭 확대(18→35개소), 하천제방·사방시설 등 홍수·산사태 우려지역 예방 투자(+764억원)
  - (국가하천) 국가하천(총 89곳) 정비 및 유지보수 확대(9,241→9,416억원)
  - (배수개선)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로 개선(4,535→4,852억원)
  - (사방사업)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댐 등 구축 확대(2,510→2,784억원)
- (폭염) 여름철 극한 폭염 등 이상기후에 대응한 취약근로자 폭염예방설비(이동식에어컨, 그늘막 등) 확대(3→5.4천개소)
- (지진) 내진성능 평가·인증(150→300개소), 지진관측망 확충(44→60개소)

(단위: 억원)

구 분	'24년	'25안	비고
- 전기차 충전인프라	3,275	6,188	물량 확대(2.3→9.5만기)
- 클린사업장조성지원	4,718	4,818	안전동행지원(+123개소), 폭염예방(+2.4천개소)
-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	2,178	2,858	신규 18→35개소

## ② 첨단·과학수사와 국민 권리구제 강화

### 【민생범죄 근절】 “보이스피싱 경보 48시간→10분” (0.3→0.4조원)

- **(마약)** 공항·항만 유입 사전차단, 다크웹·가상자산 계좌분석(8→36건)으로 실시간 유통 모니터링, 청소년 마약노출 예방(+15억원)
  - (공급차단) 수사관 상호파견(1→3개국), 수중드론(신규 3대), 마약탐지견 훈련센터 확충(90→140건)
  - (수요억제) 텔레그램, 다크웹, 가상자산 계좌 분석(8→36건) 및 모니터링 강화
- **(첨단·지능범죄)** 보이스피싱 조기경보로 기존 48시간 → 10분내 전화번호 전국 차단(+7억원), **신규** 딥페이크 AI 영상·음성분석(27억원)
- **(위해제품)** 해외직구 제품 안전관리 위해 **통관 안전성** 검사 확대(+21억원), 불법제품 유통 차단 인프라 구축\*
  - \* **신규** X-ray 판독훈련센터 구축(20억원), 특송물류센터 분류시스템 개선(+8억원)

### 【국민 권리구제】 “사법부 AI 도입, 국선변호사 확대” (0.2→0.3조원)

- **(신속재판)** 재판연구원 증원(+80명), 전문감정인 제도 신설, 사법부 AI 도입을 통한 재판심리 효율화
- **(국선변호인)** 피고인 국선변호사 확대(+20명), 피해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**경력직 국선변호사 우대**(월 최대 200만원 추가)
- **(피해자 보호)** 2차 범죄피해 우려자 밀착경호 서비스 전국 확대(100→350명, +18억원), 피해자 생계비 지원한도 인상(50→70만원)
  - (장례비) 범죄피해자 장례비 지원 상한을 현실화(1인 상한 400→500만원)
  - (안전조치) 피해자 위치확인을 위한 신형 스마트워치 보급 확대(7,900→9,180대)

(단위: 억원)

구분	'24년	'25안	비고
- 마약근절	810	1,005	수사관 상호파견, 수중드론, 다크웹 모니터링
- 첨단·지능범죄 대응	2,166	2,527	보이스피싱 조기경보시스템, 전자감독 강화
- 위해제품 차단	38	94	통관 안전성 검사, 위조제품 유통 차단
- 국민 권리구제	2,268	2,732	사법부 AI 도입, 국선변호인, 피해자 보호

### 3 군 자금심 고취와 강한 군대 육성

#### 【軍처우개선】 “병 봉급 205만원, 1인1실 간부숙소” [5.0→6.2조원]

- **(병사)** 병 봉급 약속이행(165→205만원, +0.8조원)\*, 2~4인실 생활관 확충(118→187동, 782억원), 병영식당 리모델링(10→52동, +217억원)
  - \* (병장 기준) 월 급여 150만원 + 병내일준비지원금 55만원 지급
- **(간부)** 국민평형(85m<sup>2</sup>) 관사, 1인 1실 간부숙소(‘26년까지 제공 목표) 등 軍 간부 주거시설 집중 투자(5,260→7,863억원, +49.5%)
  - 여성 화장실·탈의실 등 여군 기본시설 확충(750개 부대, 417억원)
- **(예비군)** 1~4년차 동미참 훈련 참가비(4만원) 및 5~6년차 작계훈련 교통비(6천원) 신설, 동원훈련시설 개선(22개소, 96억원)
- **(의료체계)** 軍병원 특성화센터\* 신설(2개소), 군의관 위탁교육 확대(12→20명) 및 응급진료보조비(건당 10만원, 월 최대 150만원) 신설
  - \* (수도병원) 중증외상환자(총상, 폭발상 등) 재활센터, (구리병원) 치유회복센터

#### 【전투역량】 “최강전사 육성·위리어플랫폼 확충” [0.3→0.4조원]

- **(훈련시설)** 실내전투체육관\*(신규 18동), 과학화 훈련장(4→9개소), 연병장 현대화\*\*(11개소), 차단벽·실내사격훈련장(25개소) 등 확충
  - \* 실내 크로스핏 구조물(끌기·밀기 등) 설치, 폭염·한파시 체력단련·훈련여건 보장
  - \*\* 면적·배수시설·인조잔디·육상트랙 등 표준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
- **(전투장비)** 위리어플랫폼 장비\* 확충(보급률 54.8→71.1%, 417억원), 기능성 전투우의 등 신형 전투피복 도입(기존 9종→통합4종, 535억원)
  - \* 모듈형방탄헬멧, 피아식별기, 청력보호헤드셋, 고성능확대경, 조준경 등

(단위: 억원)

구분	'24년	'25안	비고
- 병 봉급	42,846	51,013	병장 기준 165 → 205만원
- 관사및간부숙소	5,260	7,863	관사 신축 312세대, 매입 120세대 등 1인 1실 간부숙소 2,276실 확보
- 훈련시설	1,638	1,894	과학화훈련장 4→9개소, 실내전투체육관 18동
- 위리어플랫폼	334	417	장비 보급률 54.8→71.1%



**【 전력증강 】 “KF-21 본격양산(0.2→1.1조원)”**

**(6.5→7.8조원)**

- **(3축체계)**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, **신규**L-SAM 양산 등 北미사일 다층방어체계 확충, 우주 감시정찰 능력 확대

- (전략표적타격) 장보고-III Batch-II(1,961→3,322억원), F-35A 2차(4,249→6,805억원)
- (미사일방어체계) **신규**L-SAM(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)(52억원), 장사정포 요격체계(702→1,127억원)
- (3축 기반)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(249→1,137억원), 425 위성(993→1,179억원)

- **(첨단전력)** '26년 전력화를 위한 **KF-21** 본격 양산, 레이저 대공 무기, **신규**중거리자폭드론 등 비대칭전력 대응 강화

- (AI·新영역) **신규**전자전기(11억원), GOP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(100→304억원)
- (무인기) **신규**중거리자폭드론(50억원), 레이저 대공무기(15→712억원)

(단위: 억원)

구 분	'24년	'25안	비고
- 3축 체계 고도화	58,214	61,615	F-35A 2차,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
- 비대칭 전력 강화	16,625	17,167	전자전기, 레이저대공무기 등
- 보라매(KF-21)	2,387	11,495	보라매 최초양산

**【 보훈 】 “보상금 3년 연속 5%대 인상”**

**(5.0→5.2조원)**

- **(보훈급여)** 보상금 3년 연속 5%대 인상\* 및 참전명예수당 (現42만원), 무공영예수당(現48~50만원) 등 **+3만원 정액인상**

\* ('23) 5.5% → ('24) 5.0% → ('25안) 5.0%

- **(광복80주년)**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한 범국민적 기념행사 및 독립운동가·순국선열 감사캠페인 지원

- (기념행사) 광복 80주년 경축 드론쇼(25억원), 광복 '2025' 문화예술축제(14억원), 빛으로 하나된 대한민국(23억원), 기념키트 및 타임캡슐 제작(4억원)

- **(보훈시설)** 국립묘지(영천·이천·임실호국원) 묘역 **확충**(+9.5만기) 및 보훈대상자 편의를 위한 **지방보훈회관** 신규 건립(3개소)

(단위: 억원)

구 분	'24년	'25안	비고
- 보훈급여	50,042	50,995	기본인상 +5%, 참전·무공수당+3만원 등
- 광복 80주년 기념사업	-	97	드론쇼, 감사캠페인, 문화예술축제 등
- 보훈시설(국립묘지 보훈회관)	393	410	영천·이천·임실 호국원 묘지 확충, 보훈회관 건립

#### 4 전략적 외교 · ODA로 국익 창출

##### 【외교 · 통일】 “APEC · 한중양궤 정상회의 성공개최” (7.5→7.8조원)

- (국익외교) **신규** 2025 APEC(‘25.11월, 경주) 및 **신규** 한-중양궤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지원하고, G20·한미일 등 글로벌 거버넌스 대응 강화
- (통일) 북한이탈주민 정착기본금 역대 최대 50% 인상(10→15백만원), 북한인권 국제회의 등 국내외 통일 공감대 확산(+126억원)

##### 【ODA】 “민간금융기관 협력 등 기업진출(+0.2조원)” (6.3→6.7조원)

- (기업진출) **신규** 유·무상 연계로 기업진출을 지원하는 다부처 협업 ODA\*(6개 프로젝트, 1,453억원) 및 **신규** TIPS기업 해외진출(26억원) 신설
  - \* (예: 이집트 철도 현대화) 철도 전자 연동시스템 구축(EDCF) + 이집트 기술대학 철도학과 신설(KOICA) + 기관사 등 운영기술 전수(국토부)
- **신규** 민간 금융기관 협력지원 프로그램\* 신설(1,297억원), **신규** EDCF 아카데미 설립(12억원) 등 기업진출 기반 강화
  - \* 우리나라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개도국 현지법인 차관지원(‘23.11, ODA 인정)
- (청년교류) 해외봉사단(0.5→0.6만명) 및 국제기구 JPO(109명) 해외 진출 지원(+166억원), GKS 유학생 확대(0.6→0.7만명, +154억원)
- (전략지역·분야) 성장잠재력 큰 아프리카·중앙아시아(+0.2조원)와 그린·보건·디지털 분야 ODA 강화(+0.16조원)

(단위: 억원)

구 분	'24년	'25안	비고
- 아프리카	9,301	10,720	WFP 쌀 원조 확대(10→15만톤) 등
- 중앙아시아	1,629	2,021	병원 건립, 에너지 등 유·무상 원조 확대
- 기업 해외진출(EDCF)	20,931	22,733	민간 금융기관 협력지원 프로그램 신설(+1,297억원)
- 북한이탈주민 정착기본금	41	50	1인당 단가 10 → 15백만원(+50%)

[ '25년 달라지는 모습 ]

분 야	주요 프로그램	'24년	'25안
재해 · 대응	전기차 스마트제어 충전기	+2.3만기	+9.5만기
	고위험 화재 진압장비	1종	6종
	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	신규 18개	신규 35개
	근로자 폭염예방 설비	3천개소	5.4천개소
치안 · 안전	보이스피싱 조기경보	48시간	10분내 전국경보
	범죄피해자 지원	생계비 50만원 장례비 400만원	생계비 70만원 장례비 500만원
	2차 범죄 피해우려자 경호 서비스	수도권 (100명)	전국시행 (350명)
국방 · 보훈	병 봉급	165만원	205만원
	간부 주거시설 투자	0.5조원	0.8조원
	워리어플랫폼 보급률 * 전투역량 개선 첨단전투장비	54.8%	71.1%
	보훈보상금 (상이 1급 1항)	368만원	386만원
외교 · ODA	정상회의	한-아프리카	2025 APEC 한-중앙아시아
	아프리카·중앙아 ODA	1.1조원	1.3조원
	청년 해외진출 ODA	0.5만명	0.6만명
	다부처 협업 ODA	-	이집트 철도 등 대규모 프로젝트 6개
	북한이탈주민 정착기본금	1,000만원	1,500만원

## IV. 재정운용혁신

### 1 협업예산

- 다부처 정책수단이 필요한 복잡한 경제·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부처간 벽을 허물고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는 협업예산 편성
- ① (프로젝트형) 다부처 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동시 집중 투자 함으로써 단기간 내 조기 성과 창출
- ② (전주기협력형) 수요자 관점에서 다부처 사업의 단계별 맞춤형 이어달리기 지원으로 성장경로 이행 지원
- ③ (효과제고형) '부처'를 넘어 '분야' 단위로 효과성을 점검하여 저성과·유사중복 구조조정 → 시의성 있는 핵심사업 재투자

### 2 지출구조조정

- 의무지출 등 재정소요 확대에 대응하여 재정여력을 확보하고, 재정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출구조조정 지속 필요
  - '23·'24년에 이어 '25년에도 관행적·점증적 예산편성 방식에서 벗어나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·효과성 재점검 추진
- ⇒ 총 △24조원 수준 절감(3년 연속 △20조원 이상 구조조정)

#### < 지출구조조정 주요 유형 >

① 투자 우선순위 조정	▶ 산업구조·사회여건 변화에 맞춰 타당성 낮은 사업 재구조화 ▶ 일반·범용목적 용자지원을 맞춤형·전문형 용자지원으로 전환
② 공공경비 절감	▶ 각 부처 내 정보화 사업 등을 통합 발주 ▶ 관례적 시설비 지급을 사전점검을 통해 필수소요에 한정
③ 유사중복·집행부진 정비	▶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, 조세·재정지출 간 중복지원 정비 ▶ 현장의 실소요를 재점검하여 집행방식·사업규모 조정

[ 참고 : 협업예산 16대 과제 ]

1 프로젝트형 : 다부처 “공동기획 + 패키지 집중투자” 프로젝트 신설

<p><b>1 인구감소지역 패키지 지원</b> (중기·국토·문체부 등)</p>	<p>▶ 민간·지역 주도로 맞춤형 지역 발전계획을 수립하면 부처합동 공모·심사를 통해 다부처사업 묶음지원</p> <p>* 상권형 「신규리노베이션 프로젝트」 예시: 민간주도 쇠퇴상권 활성화 계획 수립시 3~4개소를 선정하여 다부처 동시 투자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624 546 1374 589"> <tr> <td>주차장(국토부)</td> <td>판로(중기부)</td> <td>문화행사(문체부)</td> <td>...</td> </tr> </table>	주차장(국토부)	판로(중기부)	문화행사(문체부)	...	
주차장(국토부)	판로(중기부)	문화행사(문체부)	...			
<p><b>2 문화가 있는 산단</b> (산업·문화·국토부)</p>	<p>▶ 범부처 합동으로 「문화선도산단」 3개소를 선정해 산단 테마에 맞는 공간디자인 및 문화체험 묶음지원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624 741 1374 784"> <tr> <td>랜드마크(산업부)</td> <td>문화관광(문체부)</td> <td>도시재생(국토부)</td> </tr> </table>	랜드마크(산업부)	문화관광(문체부)	도시재생(국토부)		
랜드마크(산업부)	문화관광(문체부)	도시재생(국토부)				
<p><b>3 바이오 성과도약 프로젝트: Bio 원팀</b> (과기·복지·질병청 등)</p>	<p>▶ 부처연계가 시급한 바이오R&amp;D 5대 공동프로젝트를 선정해 프로젝트별 5~6개 연계형 R&amp;D 동시지원</p> <p>* 5대 분야 : ①면역세포 치료제 개발, ②유전자 치료제 개발, ③보건의료 데이터, ④AI 헬스케어, ⑤mRNA 백신 신속 개발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624 1010 1374 1052"> <tr> <td>기술(과기부)</td> <td>데이터(복지부)</td> <td>임상(질병청)</td> <td>심사(식약처)</td> <td>...</td> </tr> </table>	기술(과기부)	데이터(복지부)	임상(질병청)	심사(식약처)	...
기술(과기부)	데이터(복지부)	임상(질병청)	심사(식약처)	...		
<p><b>4 지역 테마관광 활성화</b> (문체·해수·보훈부 등)</p>	<p>▶ 국내 테마관광 활성화 위해 테마별(크루즈·전적지·자전거) 관광시설 인프라(각부처) + 관광상품 개발(문체부) 동시지원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624 1218 1374 1261"> <tr> <td>항만어촌(해수부)</td> <td>현충시설(보훈부)</td> <td>자전거길(행안부)</td> <td>관광상품(문체부)</td> </tr> </table>	항만어촌(해수부)	현충시설(보훈부)	자전거길(행안부)	관광상품(문체부)	
항만어촌(해수부)	현충시설(보훈부)	자전거길(행안부)	관광상품(문체부)			
<p><b>5 첨단전략산업 수요맞춤 인력양성</b> (고용·과기·교육부 등)</p>	<p>▶ 기존 디지털분야에 집중된 K-Hightech Training을 관련부처·대학·기업과 협력해 AI·반도체·바이오로 확대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624 1413 1374 1456"> <tr> <td>훈련비 지원(고용부)</td> <td>훈련시설 인프라 확충(4개부처)</td> </tr> </table>	훈련비 지원(고용부)	훈련시설 인프라 확충(4개부처)			
훈련비 지원(고용부)	훈련시설 인프라 확충(4개부처)					
<p><b>6 부처협업 늘봄학교</b> (교육·기재·금융위 등)</p>	<p>▶ 교육부를 중심으로 늘봄학교 공동 협의회를 구성하여 17개 부처+대학 전문성 활용, 늘봄학교 프로그램 지원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624 1610 1374 1653"> <tr> <td>프로그램 개발(17개부처·대학)</td> <td>프로그램 기준마련·공급(교육부)</td> </tr> </table>	프로그램 개발(17개부처·대학)	프로그램 기준마련·공급(교육부)			
프로그램 개발(17개부처·대학)	프로그램 기준마련·공급(교육부)					

2 전주기협력형 : 부처간 단계별 이어달리기 협업체계 마련

<p><b>7 유학·정주·혁신형 외국인 정책</b> (법무·고용·중기부 등)</p>	<p>▶ 입국동기별(유학생/근로자/창업가) 최종 정착단계까지 필요한 후속사업을 릴레이 지원하여 정착 유도</p> <p>* 유학생 예시 : 인력 수요조사(중기부)→ 인력수요기반 전략적 유학생 유치(교육부)→ 졸업후 취업매칭(중기부)으로 국내취업 유도</p>
--	--

**⑧ K-콘텐츠 연계  
소비·수출 확산**  
(문체·산업·중기부 등)

- ▶ 신규 Beyond-K Festa 등 대형 한류축제를 중심으로 K-콘텐츠 연계 수출 밸류체인 구축
- \* [inbound 국내유입] 방한관광(외교부 등)→ 대형축제(문체부) → 소비재 판매(농림·해수·복지부 등)→ 투자유치(중기·문체부)
- \* [outbound 해외진출] 상품개발(농림·문체·중기부)→ 한류박람회, OTT 콘텐츠 연계 마케팅(문체부 등)→ 수출바우처(중기부)

**⑨ K-방산수출 글로벌  
4강 기반구축**  
(방사·국방·산업부 등)

- ▶ 방산 수출기업 육성을 위한 범정부 One-Team 지원
- \* 공동 로드맵 마련(방사청·산업부)→ 소재부품 공급망 분석 및 수출 제품화 지원(방사청)→ 무역관 활용 수출지원(산업부), 국내 우수기술 소개(국방부)→ 금융 지원(방사청·수은·무보)

**⑩ 딥사이언스 창업  
Highway(과기·중기부)**

- ▶ 딥사이언스 기술창업 R&D 기업 성장단계별 협력
- \* 딥사이언스 창업 R&D(과기·교육부)→ 고도화단계 인력·AC펀드 매칭(과기·중기부)→ 졸업후 성장단계 후속 R&D·자금(중기부)

**⑪ 의료개혁 재정지원**  
(복지·교육부·과기부)

- ▶ 필수의료 관련부처 역할분담으로 단계별 지원 강화
- \* 의대교육(교육부)→ 전공의수련(복지부)→ 국립대병원·지방의료원 장비 구축(교육·복지부)→ 현장 의료수요 연계 R&D(복지·과기부)

**3 효과제고형 : 부처 합동으로 중복·저성과 정비 → 핵심과제에 재투자**

**⑫ 청년 미래도약 뒷받침**  
(국조·고용·교육부 등)

- ▶ (효율화) 청년정책평가 연계, 유사중복 정비
- ▶ (재투자) 청년 수요 및 체감도가 높은 교육·일자리·주거자산 분야 투자 확대

**⑬ 저출생 대응  
'선택과 집중'**  
(복지·고용·여가부 등)

- ▶ (효율화) 전달체계 개편, 중앙·지방 협력
- ▶ (재투자) 일가정양립, 교육·돌봄, 주거 3대 핵심분야 투자 확대

**⑭ 전략적 ODA 투자**  
(국조·기재·외교부)

- ▶ (효율화) 소규모·저성과·집행부진 구조조정
- ▶ (재투자) 다부처 유·무상 연계 고도화 추진, 중소기업 해외진출, 산업인력 양성

**⑮ 중소기업의  
혁신적 성과 제고**  
(중기·산업·과기부 등)

- ▶ (효율화) 부처별 소규모 창업지원사업 통합 운영, 나눠주기식 융자 효율화
- ▶ (재투자) 신산업·글로벌 진출 특화지원 융자 확대,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등 지원

**⑯ 지역 재해예방 종합  
정비(행안·환경·농림부 등)**

- ▶ (효율화) 다부처 동시추진해 설계비 등 중복투자 절감
- ▶ (재투자) 풍수해 생활권 대상 범부처 종합정비사업 대폭 확대

1. 보건·복지·고용 분야
2. 교육 분야
3. 문화·체육·관광 분야
4. 환경 분야
5. R&D 분야
6. 산업·중소기업·에너지 분야
7. SOC 분야
8. 농림·수산·식품 분야
9. 국방 분야
10. 외교·통일 분야
11. 공공질서·안전 분야
12. 일반·지방행정 분야

- ◇ 저소득층·노인·장애인 등 사회적약자를 더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
- ◇ 일·가정양립, 양육·돌봄, 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집중 투자
- ◇ 필수·지역의료에 대한 재정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

#### □ 기초수급자·노인·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보호 강화

- 기준중위소득 3년 연속 역대 최대 인상\*(6.42%, 4인), 생계·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\*\* 등 기초생활보장 강화

\* 4인가구 기준 연간 최대 생계급여액 : ('24) 2,200 → ('25안) 2,341만원

\*\* (생계) 부양의무자 예외 적용기준 완화, 노인 근로소득공제 확대 등 +3.0만가구 (의료) 부양비 부과율 인하(15~30% → 10%) +0.3만명

- 자활근로 확대(6.9→7.2만명), 디딤씨앗통장 지원 확대(기초생보 →차상위), 청년 자립자금 신설(400억 공급) 등 자립기반 강화

- 장애인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센터 신설(2개소), 의료집중형 거주시설 도입(1개소) 등

- 장애인 활동지원 인원(12.4→13.3만명)·시간(131→135시간) 확대

- 노인일자리 확대(103→110만개), 기초연금 인상(33.4→34.4만원) 등 소득지원,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확대(年 1→3천호)

- 한부모가정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신설, 양육비 지원단가 인상(월 21→23만원) 등 한부모 양육부담 경감 지원

#### □ 일·가정양립, 양육·돌봄, 주거 등 3대 출생장벽 완화 중점투자

- 육아휴직 급여 대폭 상향(150 → <sup>최대</sup>250만원), 단기 육아휴직 (연 1회, 2주) 도입 등 충분한 육아시간 보장

- 남성 맞돌봄 활성화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확대(5→20일)



-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·비율을 대폭 확대\*(+456억원)하고, 신규 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서비스 신설(13억원)

\* (지원대상) 기준중위 150% 이하 → 200% 이하로 완화  
(지원비율) 중위소득 120~150% 구간 정부지원율 15~30% → 20~40%로 상향

-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(1.3→2.5억원), 신생아 가구 등 非아파트 전세주택 3만호 공급 등 주거부담 경감

□ 전공의 지원, 필수·지역의료 강화 등 의료개혁 뒷받침

- 8대 필수과목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(0.3조원) 및 수당 지원 확대(220→4,600명, 월 100만원) 등 필수과목 의료진 양성
- 달빛어린이병원(45→93개) 및 응급헬기(9→10대, 출동수당 30만원) 확충, 암센터 양성자치료기 도입 등 필수의료 역량 확충
-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 수술실·중환자실 시설·장비 고도화(815억원) 및 지방의료원·적십자병원 역량 확충(1,784억원)
- 분만사고 보상 한도 확대(0.3→3억원), 필수과목 의료진 보험료 지원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

(단위: 억원)

구 분	'24	'25안	비고
▪ 기초생활보장	208,225	218,616	· 생계급여(75,411→84,900), 주거급여(27,424→30,368)
▪ 취약계층지원	55,018	58,322	· 장애인활동지원(22,846→21,847)
▪ 공적연금	808,644	883,846	· 국민연금급여지급(422,729→484,133)
▪ 보훈	64,798	65,722	· 보상금(34,681→35,807), 국립묘지조성(125→381)
▪ 주택	374,239	355,967	· 주택구입·전세자금(융자) (123,645→140,572)
▪ 사회복지일반	10,554	10,820	·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(1,650→1,709)
▪ 아동·보육	55,585	52,326	· 아동발달지원계좌(1,267→1,531)
▪ 노인	256,483	274,913	· 기초연금(202,015→218,646)
▪ 여성·가족·청소년	16,861	17,769	· 아이돌봄지원(4,678→5,134)
▪ 고용	222,983	235,937	· 모성보호육아지원(24,968→40,225)
▪ 노동	107,712	111,119	· 산재보험급여(78,761→80,043)
▪ 고용노동일반	6,516	6,901	· 노동위원회 전문성 강화(88→89)
▪ 보건의료	44,125	49,076	· 의료인력양성 및 적정수급관리(291→3,922)
▪ 건강보험	137,070	141,277	· 건강보험가입자 지원(121,658→126,093)
▪ 식품의약품안전	7,237	7,545	·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 강화(631→660)
합 계	2,376,050	2,490,156	전년대비 +4.8%

## 〈참고〉 일자리 분야

◇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고, 취업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으로 사회이동성 제고

-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빈일자리 미스매치 해소
  - 첨단분야 대학·기업 장비를 활용해 **K-Hightech Training** 확대
  - 실질적 직무경험 가능한 **인턴형**(1~5개월)·**프로젝트형**(2개월 내외) 중심 청년 일경험 대폭 확대(4.8→5.8만명, +469억원)
  - **미취업 졸업생** 대상 취업특강·자격증 교육 등 **신규특화지원** 신설\*하고 **구직단념청년** 취업 프로그램(5~25주 이상) 확대
    - \* 신규미취업 졸업생 취업지원(6만명, 200억원), 청년 도전지원(0.9→1.2만명, +99억원)
  - **특화훈련**, **일자리도약장려금**(사업주+취업청년), **기술연수**(3~6개월) 포함한 **신규빈일자리 채움 3종 패키지** 신설(5.8만명)
    - \* 신규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빈일자리 특화 프로그램(1.3만명, 228억원), 신규빈일자리 특화 도약장려금(4.5만명, 551억원), 신규기술연수(200명, 72억원)
- **중장년의 원활한 전직·계속고용과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** 지원
  - **중장년 내일패키지** 및 **폴리텍 특화 직업훈련**을 확대하고, **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** 요건 완화(일부 재고용도 지원)
    - \* 중장년 내일패키지(6.1→6.5만명, +6억원), 신규폴리텍 신중년 특화 학과개편(5개과, 52억원)
  - **고용장려금** 및 **표준사업장 시설투자** 한도 확대(10→15억원)
    - \* 장애인고용장려금(63.3→75.6만명, +540억원), 신규도약지원형 표준사업장(10개소, 30억원)
- **부모맞돌봄, 근로환경 유연화 등 일가정양립 지원** 대폭 확대
  - **육아휴직급여 상한** 인상 및 **배우자 출산휴가** 급여 지원 확대
    - \* (육아휴직) 급여 상한 150 → 1~3개월 250, 4~6개월 200, 이후 160만원, 신규단기 육아휴직 도입
    - \*\* (배우자 출산휴가) 급여 지급 기간 확대(5→20일)

○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및 유연근무 장려금을 인상하고,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대체인력지원금 확대

- \* (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) 상한 200 → 220만원(유연근무장려금) 월10~40 → 20~60만원
- \* (대체인력지원금) 육아휴직 재신설, 파견근로자 허용, 80→120만원 지원
- \* (업무분담지원금) 신규육아휴직시 동료 업무분담 근로자 인센티브 신설(월20만원)

□ 노동약자 보호를 통한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개혁 지속 추진

○ 근로자 이음센터 추가설치(6→10개소, +28억원)하고, 임금체불 대지급금(8.8→10.5만명) 및 생활안정자금 용자 확대

○ 대기업·원청의 중소·하청업체 상생협력 투자 지원 강화

- \* 공동근로복지기금(86→154개, +68억원), 대·중소 안전보건 상생협력(3.6→3.8천개, +12억원)

□ 노인·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 위주 직접일자리 지원 확대

○ 노인일자리를 103→110만개까지 확대(+1,583억원), 자활근로 인원(6.9→7.2만명) 및 단가(3.7%) 인상(+707억원)

□ 실업급여 등 고용안전망 지속 확충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

○ 구직급여를 지속 지원하고, 조기재취업수당 선지급 연령 인하(65→60세) 등 근로의욕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병행

- \* 구직급여(158→162만명), 조기재취업수당(10→12만명, 선지급연령 인하)

○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확대(6→8개소)로 고용-복지-금융 연계

- \* 고용서비스통합네트워크(6→8개소, +9억원), 구직자 심리상담(3.2→6.4만건, +19억원)

(단위: 억원)

구 분	'24년	'25안	비고
▪ 직접일자리	35,569	36,820	· 노인일자리(103→110만명), 자활(6.9→7.2만명)
▪ 직업훈련	26,112	22,659	· K-Hightech Training(4.4→4.5만명)
▪ 고용서비스	16,389	17,206	· 청년일경험(4.8→5.8만명)
▪ 고용장려금	43,123	57,046	· 육아휴직급여 상한(150→최대 250만원)
▪ 창업지원	31,147	28,083	· TIPS(3,411→4,777)
▪ 실업소득 유지·지원	129,172	130,960	· 구직급여(158→162만명), 조기재취업수당(10→12만명)
▪ 지원고용 및 재활	10,401	10,754	· 장애인고용장려금(63.3→75.6만명) 등
합 계	291,914	303,528	전년대비 +4.0%

## 2    교육 분야

- ◇ 전 생애에 걸친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
- ◇ 의대증원 관련 소요를 포함해 대학 인프라 지원 강화
- ◇ 지역·대학 협력체계 개편으로 미래 핵심분야 인재양성
- ◇ 디지털 혁신 및 글로벌 역량강화 뒷받침

### □ 생애주기별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

- 유보통합, 늘봄학교\* 등을 통해 국가 교육·돌봄 책임을 강화하고, 저소득층·장애학생 등 소외계층 포용\*\*

\* 신규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 양성 지원(320억원),

\*\* 교육급여 평균 5.0% 인상, 한국교원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(31억원)

- 대학생 학비 부담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을 9구간까지 지원, 저소득 대학생 근로장학금 확대 및 신규주거안정장학금 신설

\* (국가장학금) 9구간 확대(+50만명), (근로장학금) 14→20만명(+6만명)  
(신규주거안정장학금) 기초·차상위 4.2만명, 월20만원

-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을 지원하는 거점학교를 확대(17→24개교)하고,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확대(8→11.5만명)

\* (직업계고 거점학교) 17.5→24.5억원 (평생교육바우처) 262→286억원

### □ 의대 증원에 따라 국립대와 사립대의 시설·기자재 소요 및 의대 교육혁신을 충분히 지원

- 거점국립대\*(9개, 의대 보유)의 시설개선과 기자재를 지원하고, 사립대 의대 교육환경 개선에 우대금리(1.5%)로 융자

\* (시설개선) '25년 1,432억원 / (기자재) '25년 76억원

- 정원이 증원된 32개 의대 대상 대학별 특화 프로그램 개발

□ 지자체·대학이 주도적으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RISE 본격 시행(1.2→2.0조원) 및 첨단분야 인재양성

- 지역대학에 대한 지자체 권한을 대폭 확대\*하고, 혁신역량을 가진 지방대를 글로벌 대학으로 지정·육성\*\*

\* ('24년) 1.2조원 → ('25년) 2.0조원

\*\* ('23년) 10개 → ('24년) 20개(+10) → ('25년) 25개(+5)

- 첨단산업 분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부트캠프(+2개교) 및 특성화 대학(+7개교) 지원 확대

\* (부트캠프) 미래차(모빌리티) 분야 부트캠프 +2개교(+30억원)

(특성화대학) 반도체(설계특화) +2개교, 바이오 +3개교, 이차전지 +2개교

□ 성인 디지털 교육 강화 및 국내외 우수인재 글로벌 역량 확충

- 성인 디지털 직무역량 함양을 위해 대학(17개)에 AI·Digital 집중교육과정 신설 및 K-MOOC 디지털 도약강좌(30개) 확대

\* (신규 지원) AID 30+ 집중교육과정(+27억원), 디지털 도약강좌(+15억원)

- 국비유학생 선발 지원 강화(58→70명) 및 우수한 역량을 갖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(0.6→0.7만명)

\* (학생교육교류지원) 138 → 141억원 (국제교육 교류협력) 1,191 → 1,345억원

(단위: 억원)

구 분	'24년	'25안	비고
▪ 영유아·초중등교육	790,600	813,807	· 유보통합 관련(85,416→84,735) · 국립대학부설 특수학교 설립(23 → 31)
▪ 고등교육	146,713	157,683	· 맞춤형 국가장학금(47,205 → 53,134) ·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(12,025 → 20,010) · 국립대학 시설확충(10,053 → 10,929)
▪ 평생·직업교육	12,636	11,588	· 평생교육바우처 지원(262 → 286) · 고졸자후속관리 지원모델(17.5 → 24.5)
▪ 교육일반	1,603	1,641	·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(48 → 49)
합 계	951,552	984,719	전년대비 +3.5%

- ◇ K-콘텐츠와 연관산업의 소비·수출 시너지 극대화
- ◇ 계층·지역·세대 문화격차 해소 및 정서적 치유·회복
- ◇ 외래관광객 3,000만명 시대 달성을 위한 지역관광 강화

- ‘끊김없는(seamless)’ 한류소비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콘텐츠 + 연관산업(뷰티·식품 등) 대상 전방위적 지원체계 구축
  - 대형 한류축제\*를 구심점으로 콘텐츠·연관산업 소비 촉진 및 해외VC 개방형 콘텐츠펀드(+0.1조원)로 산업 생태계 고도화
    - \* "Beyond-K Festa(BKF)": 관계부처 협업으로 내·외국인 대상 다채로운 한류경험 +뷰티·패션 등 소비기회 제공 (B2B·B2C 행사·컨퍼런스, 공연·전시·체험 등 운영)
  - 관계부처 합동 해외박람회(연 2→3회), 해외거점(25→30개소) 등 확대하여 K-콘텐츠 및 연관산업 기업의 해외진출 적극 지원
- 취약계층·소외지역·미래세대의 문화 향유권 격차를 해소하고, 인문·예술을 통한 정서적 치유 지원
  - 통합문화이용권 단가 인상(13→14만원), 어린이청소년극단 신설,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 확대(350→600명)
  - 인문학·예술교육 활용한 디지털 과몰입·ADHD 및 위기가정 청소년, 재소자·노숙자 대상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 신설
- 전문선수 인력풀 확대 및 은퇴선수 지원으로 선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, 취약계층·장애인의 스포츠 접근 기회를 확대
  - 우수선수 지원 확대 및 훈련여건 개선\*, 신규은퇴선수 직업전환 프로그램 도입\*\*으로 선수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마련
    - \* 청소년(1,000→1,210명), 꿈나무(942→1,030명) / (지도자 수당) 10→12만원
    - \*\* 은퇴선수 대상으로 창업·국내외 지도자 연수·기관 인턴십 프로그램 신규 도입

- **취약계층·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\*** 및 **프로스포츠 관람권\*\*** 지원 확대, 장애인체육 가맹단체·리그전 지원 확대\*\*\*

\* 취약계층 유·청소년 지원단가(월10→10.5만원), 장애인 인원(2→2.6만명)

\*\* 취약계층 유·청소년(1→1.8만명), 지원단가(1.5→2만원)

\*\*\* (가맹단체) 30→32개 단체(카누, 트라이애슬론) (리그전 운영) 8→11개 종목(공모선정)

- **외래관광객 3,000만명 달성을 위한 맞춤형 홍보·마케팅 강화**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**관광 인프라·콘텐츠** 지속 확충 지원

- 방한시장 특화 **신규K-컬처 연관산업 중심 마케팅**(36억원) 및 **신규K-라이프스타일** 체험수요 대응 인바운드 유치 지원(26억원)

- **신규부처 협업을 통한 지역별 테마관광 콘텐츠 확충**(85억원)\*

\* 해수부크루즈, 보훈부전적지, 행안부자전거 등 부처 협업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

- **국가유산의 체계적 보호** 및 국제역량 강화, 국가유산 보존 과정에서 발생하는 **국민불편 최소화** 및 **국가유산 향유 기회** 확대

- 국가유산 보존·복원, **신규UNESCO 무형유산 신탁기금** 신설(10억원)

- 국가유산 규제로 인해 **개발제한된 주변 정주환경** 등 개선\*, 인기있는 **궁능 활용프로그램** 및 **취약계층 프로그램** 확대\*\*

\* 국가유산 주변 경관개선 5→20억원, 역사문화환경 정비육성 18→100억원

\*\* 궁궐 다과체험 440→648회(경복궁+신규창덕궁), 취약계층 찾아가는 체험관 60→100개소

(단위: 억원)

구분	'24년	'25안	비고
▪ 문화예술 등	44,365	44,328	· 글로벌리그 펀드(정부출자 +400, 총 1,000억원 조성) · 대형한류축제 신설(+80), 해외박람회 연 2→3회 · 취약계층 통합문화이용권 단가 인상(13→14만원)
▪ 체육	16,164	16,751	·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(취약계층 지원단가 월10→10.5만원) · 취약계층 유·청소년 <b>프로스포츠</b> 경기관람권(1→1.8만명)
▪ 관광	13,161	13,479	· 광역관광개발 지원(706→1,104) · <b>신규K-컬처</b> 연관산업 연계 마케팅(36)
▪ 국가유산	13,659	13,878	· 국가유산보수정비(+126) · 취약계층 찾아가는 교육체험관(60→100개소)
<b>합계</b>	<b>87,349</b>	<b>88,478</b>	<b>전년대비 +1.3%</b>

## 4 환경 분야

- ◇ 녹색산업 육성 및 탄소저감·공정전환으로 녹색경제 전환 촉진
- ◇ 기후위기에 따른 **홍수예방**,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확보
- ◇ 체계적 폐기물 관리 및 화학안전·환경보건 등 **환경서비스 강화**

### □ 녹색산업 육성으로 2030NDC 이행 및 녹색경제 전환 촉진

#### ○ 탄소저감설비 도입, 공정전환을 위한 **녹색금융 공급 확대\***

\* (채권) 녹색채권 발행지원(25→27개사), (펀드) 녹색인프라해외수출펀드(300→600억원), (용자) 미래환경산업용자(3,299→3,333억원), (보증) 기후대응보증(840→1,000억원)

#### ○ 바이오가스·사용후배터리 등 **자원순환 투자 확대\***

\*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(+8개), 신규LFP 배터리 재활용체계(66억원) 등

#### ○ EU CBAM 등 국제규범 대비 **중소기업 지원 강화\***

\* 중소기업 컨설팅·검증(110→185개사), 신규기후공시 공급망 실사 심층진단(600개사) 등

### □ 충전인프라 안전성·편의성 제고, 무공해차 보조금 효율화

#### ○ 과충전 제어 가능한 전기차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기존 일반형(5년이상)은 교체 추진 \*

\* 스마트제어 신규설치(2.3→7.5만기), 신규노후 일반형→스마트제어 교체(+2.0만기)

#### ○ 전기 승용·화물차 보조금은 축소\*하되 물량 확대(33.2→33.9만대), 시장수요 고려 수소 승용 및 버스 확대(0.9→1.3만대)

\* 전기차 보조단가 : 승용 4→3백만원, 화물 11→10백만원

구 분		'24년	'25년
충전 인프라	· 전기 충전기 (스마트제어 충전기)	6.1만기 (2.3만기)	9.6만기 (9.5만기)
	· 수소 충전소	62개소	68개소
무공해차 보급	· 전기차 (전기 승용)	33.2만대 (23.3만대)	33.9만대 (26.0만대)
	· 수소차	8,550대	13,020대



□ 빈번한 수해로부터 국민 보호,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확보

○ 노후 하수관로 정비, 하수처리장, 스마트 하수관리체계 등 도시침수 대응 및 수질개선 투자 확대(2.8→3.0조원)

-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설 및 완충저류시설 집중 투자로 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(1,470→2,818억원)

○ 30년 이상 노후관로 개량, 단선관로 복선화 및 고도정수처리 시설 등 확대\*, 수돗물 유충 차단장치(65개 정수장) 확충

\* 광역상수도 노후관로 개량(425→586억원), 광역상수도 확충(242→493억원)

□ 폐기물 및 오염·유해물질 체계적 관리 통한 환경서비스 강화

○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비 소각시설 투자, 가축분뇨 고체 연료화 시설 도입 등 저탄소 에너지원 발굴

\* 소각·순환매립 시설 등(1,600→2,352억원), 가축분뇨처리시설(594→ 1,167억원)

○ 어린이용품, 화장품, 석면함유제품 등 해외직구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대 및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

\* 어린이용품 및 화학제품(4,000→8,000건), 온라인 모니터링(8,000→60,000건) 등

○ 어린이·임산부 등 사회취약계층 대상 환경보건이용권 서비스 (진료지원, 환아상담 등) 지원 확대(6천→1만명)

\* 취약계층 대상 건강나누리 캠프, 진료지원, 환아상담 등 서비스를 전자이용권 (1인당 10만원 한도) 형태로 지원, 수요자가 원하는 사업 선택 가능

(단위: 억원)

구 분	'24년	'25안	비고
▪ 자원순환·환경경제	13,698	17,481	· 녹색정책금융활성화(319→540) · 폐기물처리시설 확충(1,600→2,352)
▪ 기후대기·환경안전	44,528	43,592	·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확충(7,344→9,284) · 무공해차 보급사업(23,193→22,631)
▪ 물환경	48,640	51,373	· 하수관로 정비(12,816→16,264)
▪ 자연환경	9,041	8,118	·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(2,137→1,456)
▪ 환경일반	5,522	5,671	· 신규환경피해조사 및 피해구제(18)
▪ 해양환경	3,514	3,729	· 연안정비(552→829)
합 계	124,943	129,964	전년대비 +4.0%

- ◇ 3대 게임체인저·국가전략기술 중심 기술패권 경쟁력 강화
- ◇ 수월성 중심 기초연구 지원과 젊은 과학자 연구환경 조성
- ◇ 글로벌 공동연구, 혁신도전형 차별화 등 선도형 R&D 전환

- 3대 게임체인저 「2030 글로벌 3대 강국(G3)」 뒷받침(2.8→3.5조원)
  - 1세대 생태계(GPU)가 아닌 차세대 AI 생태계(NPU) 선점 기술혁신, 범용 인공지능(AGI) 기술개발 등 집중 지원(0.9→1.2조원)
    - \* 신규AI 반도체활용 K-클라우드 기술개발(370억원): NPU 선점기술 개발
  - 바이오 다부처 협업체계 기반 첨단재생의료, 데이터·AI융합, mRNA 백신개발 중점 투자(1.8→2.1조원)
  -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착수(0.13→0.20조원)
    - \* (컴퓨팅) 1,000큐비트급 선도기술 개발 (통신) 초기 양자인터넷 개발실증 등
- 초격차·미래도전 등 국가 전략기술 주권확보 주력(5.4→7.1조원)
  - 첨단 패키징, 저전력·고효율 국산 AI 반도체 개발 지원하고, 低비용·高안전 차세대 SMR 개발 등 수출시장 선점 준비
    - \* 신규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도기술개발(178억원): 반도체 후공정 기술 고도화
    - \* 혁신형 소형모듈 원자로(iSMR) 기술개발(607→859억원): '25년 표준설계 목표
  - 다회용 사용가능한 재사용발사체 기술개발 및 세계최초 Pre-6G 시연('26년) 등 6G 기술 자주권 확보 추진
- 수월성·전략적·고난도 기초연구 및 청년연구자 3종 세트 지원
  - 신중·난제기술 개척연구, 우수과제 후속연구 이어달리기, 정책 아젠다 연계 연구 등 기초연구 프로그램 확대(2.6→2.9조원)
  - 한국형 Stipend 신설(박사110만원, 석사80만원/월 보장), 석박사 연구장려금(2,472→5,131개), 대통령과학장학금(120→1,215명, 신규석사 1천명 포함) 확대

□ **글로벌 R&D 확대**로 선도국과 연구동맹을 구축하고(1.8→2.2조원), 연구 자율·독립성을 파격 보장하는 **혁신도전형 강화**(0.7→1.0조원)

○ 바이오 **Top** 기관과 공동연구(보스턴코리아), 아시아 최초 **EU 다자협약체**(호라이즌 유럽) 연구 참여 등 우수연구 확대

\* 보스턴코리아 혁신연구 12:1, 의과학자 4:1 등 하버드·MIT·스탠포드 등 우수기관 협력

○ 책임연구자(PM)에 **연구관리 전권** 부여, 평가등급 미실시, 장비 신속도입 등 우수성과를 창출할 대표연구 육성

\* 알키미스트프로젝트(282→481억원): 연구팀 18개(1단계)-9개(2단계)-3개(3단계) 경쟁형 연구

□ **기후위기, 신재난·범죄**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**공공안전 R&D**

○ 신규리튬화재 배터리 기술(50억원) 등 **신종재난 대응** 기술개발, **청정수소 생산-유통-활용** 등 **2050 Net-Zero** 정책 뒷받침

\* (안전) 신규사이버범죄 수사단서 분석추론(35억), 난접근성 특수화재 진화(22→35억)

\* (넷제로) 신규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기술개발(78억), 차세대 CCU기술 고도화 등

□ **출연연 지원은 개방형·자율연구** 중심으로 개편·확대(3.3→3.6조원), 기업R&D는 **딥테크** 중심으로 재편, 투자방식 다변화 추진

\* (출연연)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과제 확대(5→15개, 1,000→1,833억원)

(단위: 억원)

구 분	'24년	'25안	비 고
▪ 과학기술·통신 분야	92,663	109,112	· 개인기초연구(과기부)(16,982→18,678) ·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(632→1,921) · 차세대네트워크(6G) 산업기술개발(210→870)
▪ 산업·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	65,548	71,831	· 소재부품 기술개발(11,410→11,780) · 창업성장 기술개발(5,317→5,960)
▪ 교육 분야	13,802	14,864	· 이공학 학술연구 기반구축(5,116→5,930) · 인문사회 기초연구(2,489→2,570)
▪ 보건·복지 분야	12,078	14,097	· 한국형 ARPA-H 프로젝트(495→701) · 연구중심병원 육성(605→818)
▪ SOC 분야	8,379	9,899	·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(594→596) · 한국형 도심항공교통(K-UAM) 핵심기술(120→212)
▪ 기타 부문	72,899	76,979	· 원예특작 시험연구(656→749) · 기후위기대응 홍수방어능력 혁신기술(48→119)
<b>합 계</b>	<b>265,369</b>	<b>296,783</b>	<b>전년대비 11.8%</b>

**6** **산업·중소기업·에너지 분야**

- ◇ 첨단전략산업, 수출·투자 및 스타트업 점프업 지원
- ◇ 무탄소에너지 확산 지원하고 핵심자원 공급망 안정화
- ◇ 소상공인에 부담완화, 재기지원, 활력회복 종합지원

□ **첨단전략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전주기 생태계 종합지원**

- 반도체 **팹리스-파운드리-후공정** 전주기 초격차 확보를 위한 **26조원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** 뒷받침(1.3→1.7조)
  - \* ①신규미래첨단산업론(0.25조원 4.3조원 공급), ②신규반도체생태계펀드(300억원 1,200억원 조성)
  - ③신규첨단패키징(178억원), ④신규K-클라우드(370억원), ⑤신규설계특성화대학(20억원) 등
- 신규포항·청주·새만금 등 **이차전지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** (4개 단지), 신규차세대 디스플레이 맞춤형 교육(700명)

□ **원전·신재생 등 무탄소에너지 확산 및 자원공급망 안정화**

- 체코 원전수주를 계기로 유망 및 해외원전 수출을 위한 **펀드** (1천억원)·**융자**(1,000→1,500억원)·**보증** 등 금융지원 강화
- 보증(신규 420억원) 등 **시장 중심 신재생에너지 생태계 지원**
- 석유·핵심광물 비축\*, 요소 수급관리\*\* 등 **공급망 안정화**
  - \* (석유비축출자) 666→799억원, (핵심광물비축기지) 187→1,151억원
  - \*\* (요소) 신규제3국 요소 장기계약에 대한 차액 50% 지원(30억원)

□ **수출 회복세 공고화 및 투자보조금 제도개선을 통한 투자촉진**

- 수출바우처·해외전시회 물량 확대(0.81만개→0.90만개사), **테크 서비스바우처 신설**(신규140억원) 및 조선업·방산 수출보증 지원
  - \* (수출바우처) 1,679→1,886억원, (무역보험) 450→800억원
- **유턴보조금** 투자 증분에 대해 일정비율 추가 지원, **지방투자 보조금** 투자건당 국비 지원한도 상향(100→150억원)

□ 글로벌 중기·스타트업 육성 및 혁신생태계·성장사다리 조성

- 신규글로벌 창업허브 구축(319억원), 글로벌기업 협업프로그램 확대(287→353개사) 등 유망 스타트업 인→아웃바운드 지원
- AI·웹리스 등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, 지역발 창업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(창업중심대학, 청년창업사관학교) 확대
  - \* AI, 반도체, 바이오헬스 등 기술창업 사업화(90개사), 지역특화 프로그램 확대(1→10개)
- 제조기업의 스마트화 및 非제조기업의 수출기반 강화 지원, 신규중견기업으로의 '점프업' 패키지 신설
  - \* 신규제조AI데이터센터(3개소), 신규컨설팅-바우처-스케일업 패키지지원(695억원)

□ 소상공인 부담완화·재기지원 및 골목상권 활력 회복

-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3중 세트\* 적극 뒷받침하고, 영세 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(30만원) 지원
  - \* ①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(최대 5년), ②대환대출 지속지원, ③전환보증 공급
- 채무조정 규모(30→40조+a) 및 점포철거비(250→400만원) 확대, 한계 소상공인의 재창업·취업 지원
- 스케일업 전용자금 신설(신규0.4조원), 민간연계 육성(신규3천개사), 온누리상품권 확대(5→5.5조원) 등 유망 소상공인 성장지원

(단위: 억원)

구 분	'24년	'25안	비고
▪ 에너지 및 자원개발	51,734	46,833	· 에너지바우처 5,014, 원전생태계금융지원 1,500
▪ 산업혁신지원	63,146	68,199	· 투자유치기반조성 3,642, 지역투자촉진 2,218
▪ 무역 및 투자유치	9,417	9,718	· KOTRA지원 3,293, 무역보험기금출연 800
▪ 창업 및 벤처	39,225	39,505	·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5,000, 창업사업화지원 4,036
▪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	105,351	107,267	· 소상공인지원(융자) 37,700, 신성장기반자금 13,111
▪ 지식재산일반	3,577	3,567	· 특허심사지원 634, 지식재산활용지원 269
합 계	279,937	282,879	전년대비 +1.1%

- ◇ 전국 어디서나 '출퇴근 30분, 전국 2시간, 전세계 1일' 생활권 실현을 위한 투자 확대 및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
- ◇ 노후화된 인프라 개선, 수해 취약 도로·하천 정비 확대

- 국토 공간의 연결성 극대화를 통해 균형발전을 뒷받침
  -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도시철도 투자 확대(0.2→0.3조원) 및 GTX 등 광역급행철도의 차질 없는 개통 지원(0.4조원)
  - 고속철도 병목구간(평택~오송) 선로 확대(1,415억→2,500억원) 및 도서·산간, 국토 최남단 지역 국도망 확충\*
    - \* 제2경춘국도(20→235억), 남해-여수해저터널(400→694억), 완도-강진고속도로(신규, 37억)
  - 가덕도(5,363→9,640억원), 대구경북(100→667억원), 새만금(384→632억원), 제주2(173→236억원) 등 8개 신공항 적기 개항 지원
- 교통요금 부담경감 및 교통 불편지역·장애인 교통서비스 개선
  - K-패스 본격 시행(185→360만명) 및 다자녀 할인을 강화하고, 광역버스 준공영제(214→250개) 등 교통서비스 개선
  - 전국 국도 병목구간 개선 확대(2,608억→2,940억원) 및 김포 골드라인 등 도시철도 과밀구간 차량 증차 지원(110억원)
  - 장애인 이동편의 제고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 확대(588 → 635대), 저상버스 도입 지속 지원(3,700대)
  - 노후 교량·터널 보수·개축 확대(4,464억→4,887억원), 극한 호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신규배수시설 정비(350억원)

□ 노후화, 공간 단절, 각종 재난 등 지역발전 저해 요인을 해소

- 편의시설(주차장, 공원) 설치와 주택정비를 연계한 **신규뉴:빌리지** 사업으로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수준으로 개선(신규 30개소)
- **산단 진입도로** 구축(신규 12개), **주요거점 노후산단 기반시설** (도로, 주차장 등) **확충**(신규 5개) 등 지역산단 경쟁력 강화
- 도시 단절을 초래하는 **도심지 철도시설**을 상부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**신규지하화** 추진(2개소, 20억원)
- 홍수 취약한 지역의 **승격하천 등 정비 확대**(+0.1조원)

□ 자율주행차, UAM 등 미래 모빌리티 확산 지원 및 건설 분야 첨단기술 도입, 해외건설 수주지원 등 산업 육성

-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원 확대 및 **UAM 상용화**를 지원
  - \*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R&D(120→212억원), 자율차 시범지구(20→26억원)
- **신규자율운항선박** 기술 확보(7.5억원)하고 **OSC\*** 및 **신규무인장비** 등 신기술을 활용한 고속도로 건설 지원(9.2억)
  - \* OSC(Off-site Construction, 공장생산) : 공장에서 부품 생산 후 현장 조립하는 방식
- **2단계 글로벌 PIS펀드** 출자 확대(200→300억원)해 **플랜트·건설·인프라** 등 국내기업 해외진출 지원(총 1.1조원 조성)

(단위: 억원)

구 분	'24년	'25안	비고
▪ 도로부문	79,779	71,998	· 고속도로(18,272→10,520), 국도(18,530→17,731)
▪ 철도부문	81,021	70,016	· 광역철도(12,156→9,131), 도시철도(5,434→6,499)
▪ 항만수자원부문	42,395	42,797	· 국가하천정비(6,627→6,794), 지하수관리(458→520)
▪ 지역 및 도시부문	18,512	20,188	· 뉴:빌리지(930), 수소도시지원(297→444)
▪ 물류등기타	30,729	33,515	· K-패스(735→2,375), 준공영제(998→1,638)
▪ 항공·공항·산단	11,986	16,311	· 가덕도공항(5,363→9,640), 제주2공항(173→236)
<b>합 계</b>	<b>264,422</b>	<b>254,825</b>	<b>전년대비 △3.6%</b>

- ◇ 농어민 안정적 소득·경영 안정을 위한 직불 관련 예산 확대
- ◇ 스마트화, 청년 농어업인 육성, 수출산업화 지원으로 경쟁력 제고
- ◇ 유통구조 개선 및 선제적 수급 관리로 먹거리 물가 안정
- ◇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농어업인 삶의 질 제고 지원

□ 농업직불 관련 예산을 역대 최고수준인 3.4조원으로 확대(+0.3조원)

- 기본형직불의 면적직불금 단가를 '20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 상향
  - \* 농업진흥지역 논·밭 평균 직불금 단가(만원/ha): ('24) 197 → ('25안) 207
- 농가 평년수입의 일정수준(최대 85% 수준)을 보장하는 수입 안정보험 전면 도입(81→2,078억원)
  - \* 보험가입 대상품목 확대(9→15개) 및 가입인원 확대(가입률 1→25%)
- 쌀 수급안정 및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의 재배면적 확대, 단가 인상, 신규품목(개) 추가(1,865→2,440억원)
  - \* 재배 면적: 156.5→176천ha, 단가 인상: (밀) 50→100만원/ha 등
- 친환경 농업 확산과 2030 NDC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·탄소 중립직불 단가 인상\*, 대상물량 확대\*\* 등 지원강화(334→593억원)
  - \* 친환경농업 논단가 인상(천원/ha): 유기농(700→950), 무농약(500→750), 유기지속(350→570)
  - \*\* 탄소중립: 물량(논물관리, 질소저감사료) 확대, 신규활동(가을갈이, 분뇨처리방식 개선) 추가

□ 스마트화, 청년농어업인 육성, 수출지원 등 농어업 경쟁력 제고

- 신규대규모 임대형 스마트팜(4개소), 신규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(3개소), 신규스마트 가두리 양식장(2개소) 조성
- 청년 농어업인에 대한 주거, 자금 등 맞춤형 지원 확대\*
  - \* 청년 보금자리주택 조성(+10개소), 청년 영농정착 지원금(+5천명), 신규청년귀어종합타운(3개소), 신규청년창업·임대형 양식장(3개소)
- 농수산 수출기업 육성 및 수출시장 개척 지원
  - \* 수출바우처(농식품 325→360개사, 수산물 62→100), 글로벌 박람회 참가지원(1,333→1,573개사)



□ 유통구조 개선 및 선제적 수급관리로 먹거리 물가 안정

- 사과(2만톤) 신규 비축 등 농산물 비축(28.6→33.4만톤) 및 계약 재배\*(101.4→105.0만톤) 확대를 통한 선제적 수급관리 강화

\* (노지채소) 82.0→83.1만톤, (과수) 12.5→14.4만톤, (과채) 6.9→7.5만톤

-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산지-소비지 온라인거래 물류비 지원(67억원), 정산·결제자금 확대(+185억원)

- 농산물 직거래 용자 확대(+70억원) 및 수산물 직매장 신규 설치(30개소) 지원 등 산지-소비지 직거래 활성화(434→520억원)

□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농어업인 삶의질 제고 지원 확대

- 난개발된 농어촌을 쾌적한 환경으로 재구조화하고 민간투자와 결합하여 거점위주 개발 유도

\* 농촌공간정비·재생(+30개소, 826→1,157억원), 어촌신활력증진(+26개소, 962→2,257억원)

- 신규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창업·업무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농촌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조성

\* 신규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지원(3개소), 신규농촌체류형복합단지조성 시범사업(3개소)

- 방문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촌 왕진버스 운영(12→15만명) 및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확대(4.6→6.1만명)

(단위: 억원)

구 분	'24년	'25안	비 고
▪ 농업·농촌	185,578	189,221	· 공익증진직불(28,702→29,536), 수입안정보험(81→2,078)
▪ 수산·어촌	31,228	31,931	· 어촌신활력증진(962→2,257), 연근해어선감척(1,626→2,206)
▪ 임업·산촌	28,540	28,485	· 사망사업(2,510→2,784), 병해충방제(1,174→1,400)
▪ 식품업	8,939	9,397	· 농식품해외시장진출(493→513),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(2개소)
합 계	254,285	259,035	전년대비 +1.9%

**9 국방 분야**

◇ 자긍심 있는 군복무를 위한 처우개선, 軍 의료 및 장비 보강  
 ◇ 3축체계 고도화, 비대칭전력 확보 등 첨단전력 강화

- 군 장병 처우를 개선하고, 軍 의료체계 및 전투역량 강화
  - 병 봉급 인상 약속 이행, 군 간부 주거시설 투자\*, 신규예비군 훈련비·교통비 지급대상 확대\*\* 등 군 처우개선(+1.2조원)
    - \* 병 봉급 인상(165→205만원), 관사(1,022→1,204억원), 간부숙소(4,107→6,048억원)
    - \*\* 신규예비군 1~4년차 동미참 훈련비(4만원), 신규5~6년차 작계훈련 교통비(6천원) 신설
  - 軍병원 특성화\* 및 구급차 확충(1,153→1,329대), 군의관 위탁교육 확대(12→20명) 및 응급진료수당 신설(월 최대 150만원) 지원(+89억원)
    - \* 수도병원 중증외상환자 재활센터 및 구리병원 치유회복센터 신설
  - 위리어플랫폼 장비 보급 확대, 신형 전투피복 도입, 과학화 훈련장 및 전투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전투역량 강화(+0.1조원)
    - \* 위리어플랫폼 보급률(54.8→71.1%), 신규신형 전투피복(기존9종→기능성4종) 실기동·실사격 과학화훈련장(4→9개소), 실내전투체육관(18동), 연병장 현대화(11개소)

- 북핵 대응 3축체계를 확충하고 미래전 주도 비대칭전력 보강
  - 패트리엇 성능개량 2차, 장보고-III Batch-II 양산, F-35A 2차 도입 등 3축체계 고도화(+0.3조원)
  - 보라매(KF-21) 최초양산 지원(+0.9조원)하고, 레이저 대공무기, 무인기 등 비대칭전력 대응 강화(+0.1조원)

(단위: 억원)

구 분	'24년	'25안	비 고
· 전력운영	417,712	435,166	· 병 봉급 약속 이행(+0.8조원) · 군 간부 주거시설 지속 확충(+0.3조원)
· 방위력 개선	176,532	180,712	· 3축체계 확충(+0.3조원) · 비대칭전력 보강(+0.1조원), 보라매최초양산(+0.9조원)
합 계	594,244	615,878	전년대비 +3.6%

**10** **외교·통일 분야**

- ◇ '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통한 국제적 위상 제고
- ◇ ODA 확대 + 우리기업·청년 진출 등 국익 극대화(6.3→6.7조원)
- ◇ 북한이탈주민 정착기본금 역대 최대인상 및 북한인권 개선

- 20년만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2025 APEC 정상회의 및 한-중양 아시아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
  - 재외공관을 활용하여 청년들의 해외 일경험 확대\*(+22억원)
    - \* 재외공관 현장실습원 등 파견 확대 : (공공외교) 60→100명, (경제안보) 신규 60명
- 국제 위상에 걸맞는 기여를 위해 ODA 확대기조를 유지하되, 우리기업·청년 진출을 통한 국익 극대화
  - \* 신규우리 금융기관의 개도국 현지법인을 활용한 민간부문 차관지원(1,297억원)
  - 성장잠재력이 큰 아프리카·중양亞 등 전략지역 투자(+0.2조원)
  - 집행부진·성과미흡 사업 등을 정비하고, 현장수요 중심으로 다부처 협업 ODA 확대
- 북한이탈주민 정착기본금 도입('05년~) 이후 역대 최대폭 인상 (10→15백만원)
  - 국립북한인권센터(+61억원),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(+41억원)을 통해 북한 인권실상 관련 국민 공감대\* 형성(+126억원)
    - \* 국제한반도포럼 창설 및 북한인권 국제회의 확대 지원(+10억원)

(단위: 억원)

구 분	'24년	'25안	비 고
· 외교·통상 부문	64,140	67,337	· ODA*(타분야 포함) 63,181→66,598 * 우리기업 해외진출(EDCF, 20,931→22,733) 아프리카(9,301→10,720), 중양아(1,629→2,021) 등
· 통일 부문	11,315	10,912	· 북한이탈주민 정착기본금(+9), 인권개선(+126)
합 계	75,455	78,249	전년대비 +3.7%

**11 공공질서·안전 분야**

- ◇ 마약·지능범죄 대응 강화 및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
- ◇ 재해예방 인프라 내실화 및 현장 대응능력 확충

- 마약·보이스피싱 등 국민일상을 위협하는 첨단·지능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확대
  - AI 등 최첨단 과학수사 장비를 확충하여 지능형 범죄를 근절하고, 가상화폐 추적 등을 통해 마약유통도 원천 차단 추진
    - \* AI 기반 음성·영상 분석장비, 다크웹 모니터링 서비스, 수중드론 등 신규 확보
  - 범죄피해자 생계비(50→70만원) 및 장례비 지원한도 상향(400→500만원), 신규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퇴소자립수당 신설
    - \* (퇴소자립수당) 5년간 월50만원, (퇴소자립지원금) 500→1,000만원
- 극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재해예방 인프라 내실화 및 현장 대응능력 확충 투자 강화
  - 일반장비로 진압이 어려운 전기차 화재 특수진압장비\* 도입(43억원),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추가 구축(2→3개 권역, +92억원)
    - \* 무인파괴방수차(6대), 질식소화덮개(41개), 관통형 방사장치(11개), 이동식 수조(11개) 등
  - 지역단위 수해예방 인프라 강화(18→35개소)하고, 신규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 시설 설치 지원(60억)

(단위: 억원)

구분	'24년	'25안	비 고
· 법원 및 헌재	23,242	24,625	· 신규감정절차개선(32), 사건기록전자화(67→128), 국선변호 지원(699→778)
· 법무 및 검찰	45,546	46,813	· 마약수사(82→100), 성폭력 피해자 지원(374→394), 실질적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강화(34→55)
· 경찰	133,486	139,162	· 신규운전능력 자가진단시스템(21), 신규바디캠 도입(77), 신규가상자산 간편조회 도입(10)
· 해경	19,292	20,060	· 신규수중드론 도입(1), 신규단속전담함정 도입(3), VTS 구축운영(264→411)
· 재난관리	22,728	20,067	· 재해위험지역정비(8,766→8,803) 전기차 화재진압장비(43)
<b>합계</b>	<b>244,295</b>	<b>250,727</b>	<b>전년대비 +2.6%</b>

**12**    **일반·지방행정 분야**

- ◇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및 정책금융 공급 강화
- ◇ 지방소멸 대응하고 과거사 희생자 및 재난 피해자 지속지원

-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위해 행정서비스통합플랫폼(250억원), 지능형 CCTV 관제체계 구축(51억원) 등 지원
  - 신규범부처 인공지능(AI) 공통기반 구축(99억원) 등 정부부문에 인공지능 도입 기반 마련
  -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(1,518→1,733억원), 범정부 신규장비 통합 구축(747→831억원) 등 디지털행정서비스 안정성 강화
- 반도체, 원전 등 주요 산업분야 유동성 공급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 공급 확대 뒷받침
-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(1조원), 지자체 빈집정비 지원(50→100억원) 하고, 과거사 희생자 및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 계속

\* 제주43보상금 등(2,262→2,419억원), 포항지진·안산 세월호 공동체 시설건립(4→98억원)

(단위: 억원)

구 분	'24년	'25안	비고
· 정부자원관리	10,833	11,186	· 중앙행정기관 노후장비통합구축(1,518→1,733) · 범정부 신규장비 통합구축(747→831)
· 재정·금융	320,668	356,969	· 반도체 저리대출(2,500)·펀드(300), 원전성장펀드(400) · 새출발기금(3,300→5,000)
· 지방행정·재정지원	715,685	689,222	· 교부세(667,593→670,385) · 지방채인수(26,000→100) · 지방대응소멸기금출연(10,000)
· 일반행정	35,142	36,750	· 제주4·3피해보상(보상금등)(2,262→2,419) · 인구주택 총조사(263→1,158)
· 입법 및 선거관리	16,430	11,668	· 국회의원선거관리(△2,810), 선거보전금(△1,072)
· 국정운영	6,636	6,779	· 경제인문사회연구회(188→221)
<b>합 계</b>	<b>1,105,395</b>	<b>1,112,573</b>	<b>전년대비 +0.6%</b>